



서울대 同窓會 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0년 9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70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본회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 동문들을 초청, 지난 8월 25일 간담회를 가졌다. (좌로부터 梁在雄·李定垠·洪禎秀·崔芝瑄·安惠鮮·林太均·張夏熔동문, 6~7면 참조)

“동창회 장학금...이제는 보답할 때입니다”

관악추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제발전으로 국민생활은 풍족해졌는지 모르지만 인정은 점점 메달라가고 있다』

요즘의 세태를 빗대어 흔히들 하는 얘기다. 신문 사회면에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미담기사가 사라진지 오래라는 개탄의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이웃 돕기 운동은 연중 펼쳐지고 있고,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중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지체아나 무의탁 노인을 보살피는 손길은 지금도 사회 구석구석에서 연綿히 이어지고 있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 때면 공중과 방송의 전화모금에 며칠사이 수십억원이 모이기도 한다.

지난 50·60년대 모두가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의 입학시존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독지가의 도움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가 심심치않게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곤 했지만 이제 그런 일은 너무도

흔해 화제가 되지 못한다. 값바느질로 일평생 모은 거금을 후세들의 교육에 써달라고 대학에 기증한 한 할머니의 사연쯤 돼야 신문지상에 소개된다. 세상 인심이 메달라 가고 있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도 세상에 쫓기다 보니 주위의 인정가화에 무관심하다는게 옳은 표현일 것이다.

장학금 受惠者의 역할

우리 사회가 그럴 정도로 성장했고, 그만큼 여유와 능력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 서울대총동창회의 장학활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23일 金在淳총동창회장은 2학기를 맞아 서울대총동창회 산하 관악회가 모금한 2억여원을 1백39명의 재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재단법인인 관악회가 지난 79년 창설된 이래 80년부터 매학기 전달한 장학금이 20여억원에 그 수혜자만도 총 2천1백명이나 된다고 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많은 동문들의 각별한 의지가 모여 이 만큼이나 해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전체 동문이 20만에 이른다면 그 수준에 만족할 수는 없다. 꼭 동문의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이 사회에 접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게 그 규모를 늘려가야 마땅하다. 모든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가 배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도 여러 동문 가운데는 관악회의 존재를 몰라서, 뜻은 갖고 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어서, 또는 액수가 적다고 해서 망설이는 이도 많을 것이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런 흠어진 뜻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관악회 장학금 수혜자가 모금 일꾼으로 적극 나선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을 듯 싶다. 관악회의 도움으로 학업을 무난히 마치고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장학금의 고마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긴요성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도 이 사회의 중견으로 자리 잡아갈 연조다. 지금부터 그들이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관악회의 앞날이 더욱 밝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萬)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鍾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金有信,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이따금 서울 동숭동 대학로를 찾는다. 대학로에 가면 젊은이들의 낭만과 대학시절 추억이 교차되면서 묘한 활력이 솟구친다.

그래서 마로니에공원 노천무대에서 펼쳐지는 굿판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대학로 뒷골목 소극장에서 연극을 즐기기도 한다.

토요일이면 대학로는 더욱 활기차다. 사람이 들끓고 온갖 소음 속에서 환희가 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60년대 중반 붉은 벽돌 강의실과 운동장이 있던 그 자리에는 호프집, 레스토랑, 카페, 피자 및 패스트푸드 가게들이 즐비하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으레 먹거리를 파는 가게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이것을 닦할 수야 없다.

그러나 대학로가 조금씩 「먹자골목」처럼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느 날 저녁 「파랑새 소극장」에서 연극 「유니언 K7 채팅」을 보았다. 좌석이 딱 차야 1백석 미만인 객석에는 20여명도 채 못되는 관객이 자리를 지켰다. 한여름날 밤, 역시 소극장 「오늘한강마녀」에서 미니 뮤지컬 「밤과 래퍼」를 봤다.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었지만 역시 객석에는 30여명의 관객밖에 없었다. 공연이 끝난 뒤 대학로 뒷골목을 돌아보았



느리나무 광장



李慶衡
대한매일 편집국장

다. 맥주 집에는 젊은 이들이 빼곡이 찼고, 노래방에는 빈방이 없을 정도였다.

대학로는 결코 서울 시내 여기 저기 늘어

나고 있는 「먹자골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로는 문화와 젊음과 축제가 어우러지는 거리가 되어야 한다. 마로니에공원에서 즉석 초상

화를 그려주는 거리화가들이 제자리를 잡고 놀이패가 주말의 거리를

흥겹게 만들 때 대학로 문화는 꽃피게 되는 것이다.

극장 「학전」의 「지하철 1호선」이 벌써 공연기록 1천회를 넘겼지만 공연 관계자가 전해 주는 대학로 무대의 황폐함은 안쓰럽기만 하다. 서울에서 으뜸가는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대학로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학전」이 어려울진대 다른 소극장이야 일러 무슨 말을 하겠는가.

대학로가 또 하나의 「먹자골목」으로 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무대와 객석 사이에 체온이 느껴지는 소극장 공연을 사랑하자. 때마침 오는 10월 중순까지 대학로 일대 40여개의 크고 작은 공연장에서 「독립예술제 2000」에 이어 「제24회 서울연극제」가 막을 올리고 있다. 우리 다함께 「좋은 관객」으로 참여하자.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민족의 情과 恨에 불꽃을...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보고-

눈물 및 회한과 감격으로 서울·평양을 뒤덮었던 남북 이산가족 「핏줄의 만남」이 마치 영화 속 극적인 파노라마 같이 잠깐 펼쳐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모든 빅 이벤트가 다 그렇듯이 클라이맥스 뒤에 오는 이 아쉬움, 이 공허함, 이 허전함. 이제 우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情이 많은 민족, 恨이 쌓인 민족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그 민족성을 양절냄비 같이 쉽게 달아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건망증 심한 사람들이라고도 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 장면에서 보여준 그 情의 넘쳐흐름, 쌓인 恨의 분출 모습은 당사자는 물론 태평양 건너 멀리서 바라다보는 사람들조차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감격과 흥분을 안겨 주었는데, 건망증 심한 우리는 이제 또 이를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 망각속으로 묻어 버려도 좋을 것인가?

「감격의 대향연」이 끝난 후에 고요와 정적 속에서,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이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본다. 앞으로의 보다 큰 발전과 비약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에서 보여준 그 눈물의 넘쳐흐름, 간장을 애는 울부짖음과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多情多恨의 모습을 본다. 그렇게 情도 많고 그렇게 쌓인 恨도 많고...

다정다감한 감성의 민족이 오랜 역사와 고난 속에서 쌓이고 쌓인 이 피맺힌 恨, 그 情과 恨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한껏 표출되어 삼천리 강도를 온통 울음바다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情과 恨을 한 단계 승화시켜 보다 이성적·이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족의 슬기를 발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그렇게도 무섭게 표출되는 그 情과 恨. 그것을 반세기 동안 그 누가 그렇게 억누르고 짓밟아 왔던가?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처절한 인간욕구를 왜 그렇게 억눌림 당한 채, 봉쇄 당한 채, 그냥 그대로 살아왔단 말인가?

『반세기 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는 혈육들을 못 만나고 살아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어느 외국 기자의 말, 물론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잘 모르는 「인권국가」의 시각이긴 하지만 이제 이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큰 뜻을 지닌다. 만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떤 ethnic group이 우리 이산가족처럼 그 만남을 그렇게 열망하고 간원하면서도 50여년 동안 그것이 철저히 억눌림 당하고 봉쇄 당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것인가?

이제 역사의 변화에 발맞춰,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 情과 恨의 心性에 불을 붙여야 한다.

정부와 국가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링컨의 말을 빌 필요도 없이 오늘날은 정부·국가의 존립 의의가 오직 「for the people」에 있는 시대다. 북쪽 또한 비록 그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국가 목표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이 어떤 정부, 어떤 국가 체제이건 인간의 기본 욕구를 그렇게 억눌림 당하고 그렇게 봉쇄 당한 채 더 이상 살수는 없다. 아니 그렇게 살아서도 안된다.

남과 북, 7천만 겨레의 그 넘쳐흐르는 情과 쌓이고 쌓인 恨이 한 곳으로 결집, 거기에 불이 붙여진다면 3·8선 따위 장벽같은 것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張東萬

(61년 文理大卒)

재미 자유기고가

주요 목차

- 서울대 가족3면
- 모교 영문학과 千勝傑교수
- 동문을 찾아서14면
- 학술원 李鎬汪회장·예술원 閔庚甲회원
- 화제의 동문16면
- 디자이너내셔널 安泰賢사장



모교 영어영문학과 千勝傑교수

“솔선수범해야 자식과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장남 부부는 법대, 장녀 부부는 사회대 출신

『자식농사 잘 짓는 것이 인생에서 진정 성공하는 것』이라는 말은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하는 대목이며, 그 중에서도 자녀 모두를 서울대에 입학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녀 모두를 서울대인으로 키워낸 사람이 있으니 바로 千勝傑(62년 文理大卒·모교 교수)동문이다.

부인 故 鄭惠媛(68년 文理大卒·前상명대 교수)동문 사이에 1남1녀를 둔 千동문은 장남 千景勳(95년 法大卒·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며느리 金延美(95년 法大卒·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장녀 千景曉(98년 社會大卒)·사위 李應均(95년 社會大卒) 모두 모교 출신으로, 이들을 자세히 보면 세 커플 모두 같은 단과대학 출신이라는 우연성 및 필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학교 3학년의 젊은 나이에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매스컴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도 한 장남 千景勳동문. 千동문은 수석을 한번도 놓친 적이 없는 수재로, 종종 사람들은 「전재들은 외계에 성격도 일반인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千동문은 이를 무색케 할 정도로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음악과 여행을 좋아해 친구들과 등산을 할 때면, 비가 내려도 어깨에는 항상 기타를 둘러매고 산과 한데 어우러져 밤새 노래를 부르기도 한, 멋과 풍류를 아는 인물이다. 며느리 金延美동문도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를 패스, 千景勳동문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생이기도 해, 동

문이자, 동기생, 같은 직장동료로 땀해야 할 수 없는 전생연분 커플이다. 金동문은 자그마한 체구에 말수도 적어, 그다지 활동적인 성격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언어학도에 유럽배낭여행을 다녀왔을 정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필코 해내는 성격의 소유자.

가족 중 가장 총명하고 당당한 성품을 지닌 장녀 千景曉동문은 인류학을 전공,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박물관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요리솜씨가 수준급이라 어떤 요리를 하든지 맛깔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쁘게 담아내, 예술작품인지 음식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라고.

반면 과묵하고 남자다운 매력을 물씬 풍기는 사위 李應均동문은 아내와 같은 사회대를 졸업했지만 환경관련 분야에 크게 매료돼 모교 환경대학원을 졸업, 현재 미국 MIT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고교시절, 국어문법시간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다는 千勝傑동문은 국문학에도 남다른 애착이 있었던 터라 전임 강사 시절, 국문학과사무실에 자주 들러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그러던 중 자연미가 매력적인 鄭惠媛동문을 알게 됐으며, 여행과 등산을 좋아하는 점이 같았던 둘은 이를 매개로 자연스레 친해졌다고 한다.

『저희 집의 가훈은 오로지 「성실」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나머지 모든 좋은 덕

목들도 다 갖추기 마련이죠. 가정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솔선 수범해 본을 보여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무조건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가정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千동문. 이렇듯 자식 모두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千동문 내외가 서로를 신뢰하며, 솔선 수범하는 모습을 생활 속에서 자식들에게 늘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의 얘기보다는 가족 자랑에 여념

이 없던 千동문은 그의 천직인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누구나 세상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수로 지내온 세월들을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젊고 패기 있는 제자들과 생각을 교류하고, 내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보람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특히 교수로서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삶의 자세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表)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千景勳·金延美·李應均·鄭惠媛·千景曉·千勝傑동문.



송탄 지부

무료진료, 보육원 지원 등 봉사활동에 앞장 서

글 : 沈載勳(91년 獸醫大卒)총무

필자가 송탄지부동창회 회원으로 몸담은 지도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총무직을 맡은 지도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처음 전임 총무에게 인계 받은 낯은 장부에서 송탄지부의 역사와 동문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꼼꼼하게 잘 정리된 장부에는 이미 작고하신 동문 선배님들의 성함과 「1978년 1월 16일 : 식사비 6천4백30원, 4월 25일 : 커피 값 7백80원」이라는 지출내역도 가감 없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소위 기지촌이라 불렸던 지방 소도시 송탄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인 평택시로 발전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이와 더불어 송탄지부 또한 역대 동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동안 송탄지부 동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일들을 살펴보면 우선 치과원장들로 구성된 동문들의 농촌지역

무료진료, 동물병원장들로 구성된 가족 무료진료 등을 들 수 있으며, 자매부락 지원행사, 보육원 지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행사 등 수많은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 해왔다.

이를 통해 동문들은 더욱 탄탄한 단결력을 다져왔으며,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모범적인 동창회로 우뚝 서왔다.

또한 동문들 모두 동창회 행사마다 적극 동참하여 우의를 다져왔으며, 동창회 모임석상에서도 선배보다는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 서로의 친근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퇴근길에도 부담 없이 소주 한 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돈독한 친목이 바로 우리 송탄지부의 자랑이기도 하다.

지역특성상 직장생활을 하는 동문보다는 의대·수의대·치대를 졸업한 후 개업을 한 동문들이 회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각계 각층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동문들이 점

차 회원으로 가입, 동창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99년부터 지부 회장직을 맡아 동창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 온 金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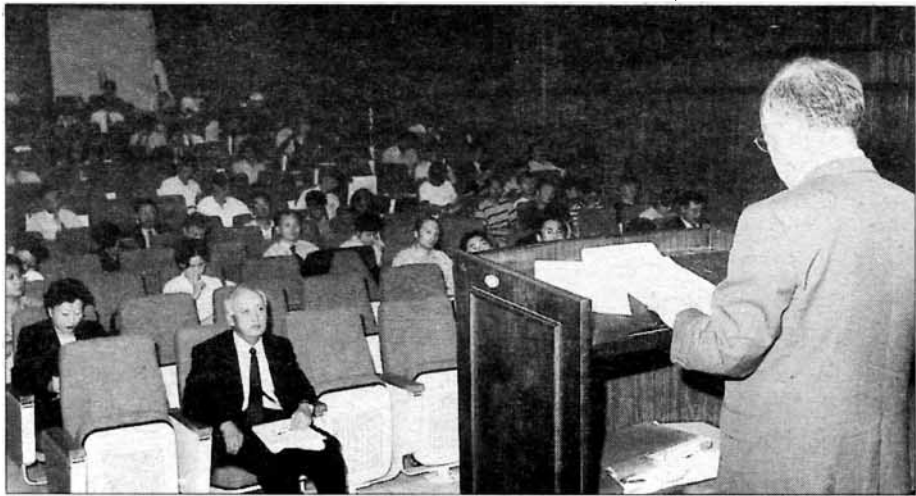
雄(67년 獸醫大卒)회장이 올해 췌장암 수술을 받고 현재 투병생활 중이다.

이에 송탄지부 회원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金회장의 쾌유를 빈다.



좌로부터 두 번째 金一雄회장.

제2차 엔젤 마트 개최 4개 벤처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S.A.ANGELS CLUB(회장 孫京植)은 지난 8월 31일 모교 관악캠퍼스 신공학관 118호에서 孔大植고문, 李義淑가정대동창 회장, 朴英俊감사, 李世震운영 위원, 모교 李俊植신기술창업네 트워크센터장을 비롯해 1백여명의 동문, 관련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엔젤 마트를 개최했다.

孫京植회장은 식사를 통해 『앞으로 클럽회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벤처기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믿을 수 있는 엔젤과 성공할 수 있는 벤처간의 가교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제2회 엔젤마트에 상장된 4개 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은 심의 평가를 거친 바 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자기책임하에 투자를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모교 공대 李長茂학장은 격려사에서 『97년 신기술창업네트워 크센터가 설립된 이래 많은 교수와 학생이 참여해 현재 1백여

개 벤처기업이 등록된 상태이며, 이 중에는 크게 성장해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좋은 결과를 얻은 기업도 있다』고 말하고 『서울대총동창회가 엔젤클럽을 결성해 교수 및 학생을 후원하고 많은 자문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金一燮운영위원장은 제1차 엔젤마트의 경과보고에서 『현재(8월 31일)까지 엔젤클럽에 등록된 회원은 일반회원이 2백6명, 특별회원이 27명, 법인회원이 14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고 말하고 『지난 5월 개최된 제1차 마트에는 성진드림시스템, 블루넷, 제일네트워크 등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총 4억3천6백만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드비즈코리아(주), (주)바이오엔텍, (주)아임스21, (주)케이앤아이테크놀로지 등 4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가 있었다.

메드비즈코리아(주)(사장 郭京浩·81년 齒大卒)는 MOD(Multimedia On Demand), P2P, Translation의 콘텐츠로

각국 의료전문가의 강연 및 세미나 등의 동영상자료를 제공하고, 고가의 의료기기를 중간유통 없이 직매매하여 국제 유통구조의 혁신 등 국제적 의료지식정보 교류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바이오엔텍(사장 崔元錫·86년 農大卒)은 생물학적인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오수와 폐수 내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및 식생복원 그리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 개발 등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주)아임스21(공동대표 朱漢鎔·86년 工大卒)은 보안용 디지털 감시장비인 VDR을 개발, 대형 보안장비업체 및 OEM방식 수출확대에 따라 판매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영상이미지의 고속 실시간 압축기술과 움직임 감지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현재 PC기반의 제품이 개발완료단계에 있으며, 향후 영상이미지 처리전송분야에 있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케이앤아이테크놀로지(공동대표 李建雨·78년 工大卒)는 3차원 레이저 측정기술에 기반한 맞춤형주문형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로, 현재 맞춤형제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중에 있다. 앞으로 인체측정기술을 바탕으로 제하는 물론 인체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에 응용하여 확장할 계획이다. (S.A.엔젤 클럽 사무국 : 704-8355~7)

제3회 S.A.엔젤 클럽 운영위원회 특별회원 승인·운영위원 추가 선정



S.A.ANGELS CLUB(회장 孫京植)은 지난 8월 24일 동창회관 4층 서라벌에서 제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엔젤클럽 및 마트의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孔大植고문, 孫京植회장, 許鎭奎부회장, 金一燮운영위원장, 朴英俊감사를 비롯해 鄭八道·尹美子·李世震·盧榮成운영위원과 제2회 엔젤마트에 상장된 업체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李平浩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메드비즈코리아(주), (주)바이오엔텍, (주)아임스21, (주)케이앤아이테크놀로지 등 4개 업체의 기업 IR을 듣고 삼일회계법인, 한국기술평가벤처컨설팅의 업체평가를 심의했다.

한편 정관 6조 2항에 의거, 한라그룹 지경택 고문 등 27명을 특별회원으로 영입키로 하고, 정관 23조에 따라 서강대 盧富鎭(69년 工大卒)교수, 유니스탠다드 曹章鉉(73년 工大卒)대표, 동도트레이딩 李杰(74년 文理大卒)대표 등 3명을 운영위원에 추가로 선임했다. (雙)

동창회 정보화에 박차 李龍兌·高賢鎭동문 지원 받아

2000년도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영광부문을 수상한 삼보컴퓨터 李龍兌(57년 文理大卒·분회 부회장) 명예회장이 동창회의 정보화 및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통신망인 두루넷 전용선(512k)을 본회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난 8월 31일 개통을 완료했다.

또한 李명예회장은 본회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삼보컴퓨터의 최신기종(DreamSys Ez 6560C) 컴퓨터 5대를 기증했다.

한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高賢鎭(81년 經營大卒)대표가 서버 컴퓨터의 WebHosting에 필요한 M/S Window 2000Server와 SQL Server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의 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를 새롭게 기획 보장하는 등 사이버 동창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백34명에 장학금 3억2천여만원 수여 金회장 “후배 사랑의 정, 소중히 간직하길” 고문 15명의 존영 관악홀에 걸어



본회(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8월 2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洪禎秀(자연대 생명과학부 박사과정)양을 비롯한 1백39명에게 2억1천5백12만2천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이번 장학생 중에는 모교 국제지역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본출신 사사키 마나부(석사과정)군과 모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6백여명을 대변하기 위해 처음으로 결성된 「외국인 학생회(ISAS)」 회장 바수 무쿨(종교학과 석사과정)군 등이 포함됐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해온 고문 15명의 존영을 관악홀 우측 벽면에 현액하고 점등식을 가졌다. 본회는 기존의 閔復基·金竣成·金鍾泌·金泳三동문 등 4명의 고문 이외에 지난 3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金道和·朴浚圭·蔡汶植·河永基·金相廈·張禮準·白文基·李姬鎬·白樂院·具平會·姜信浩동문 등 11명을 고문에 새로

추대한 바 있다.

金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재학생 모두가 자신이 가야할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의욕을 갖고 남은 대학생살을 보내기 바라며, 장학금은 선배들의 후배 사랑의 정이 듬뿍 담긴 것인 만큼 그 뜻을 소중히 간직해 달라』고 말했다.

외대동창회 李吉女(경원대 총장)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사에서 우뚝 서게 될 미래의 한국의 모습을 기대해본다』고 말하고 『오늘 이 행사가 후배들뿐만 아니라 여러 선배들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학금 수여를 마친 후 洪禎秀(자연대 생명과학부 박사과정)양은 장학생을 대표해 『오늘날 우리 나라의 경이로운 발전은 여러 선배님들을 비롯해 많은 훌륭한 인적자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먼 훗날, 오늘 여러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기대와 격려를 저희들도 더 먼 미래를 창조해나갈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학생 金正守(성악과 2

년)군이 李유나(국악과 4년)양의 반주로 「님이 오시네」를 축가로 선사해 선·후배 만남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崔主鎬명예회장, 金在淳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林光洙·洪性大·鄭哲圭·宋斗瀾·李吉女·金讚淑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李晟遠·李鍾基·朴明潤·鄭八道·金秉順이사, 楊銀淑간호대동창회장, 본보 朴聖姬논설위원, 본회 文昌星기금관리 운영위원, (주)일성 俞益善부사장, KTPI 朴世勳부사장, 아남그룹 金柱濤사장, 모교 朴泳



金회장이 고문 존영을 점등했다.

來장학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88년 장학금 혜택을 받은 바 있는 피아니스트 安惠鮮(89년 齒大卒)동문이 함께 자리했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가 95명에게 1억5백44만2천5백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000년도 2학기 장학금은 총 2백34명에게 3억2천56만4천5백원이 지급됐다. (變)

10월 15일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개교기념일에 여러분을 모교로 초대합니다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2회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개교기념일인 10월 15일 거행됩니다.

모교를 방문하여 그동안 잊고 지내던 옛 동문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등산대회에서는 참가하신 동문가족에게 故 吉屋潤(본명 崔致禎·49년 齒大卒)동문의 주옥같은 섹스폰 연주곡이 담긴 기념CD를 드릴 예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 시: 2000년 10월 15일 (日)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가족

참가비용: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등

경 품: 다량의 선물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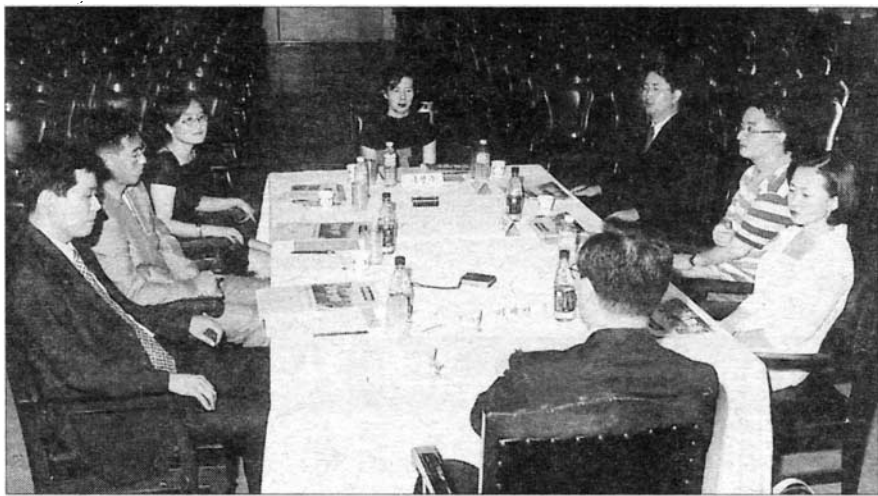
문의전화: (02) 702-2233



동창회 장학생 출신 간담회

“선배로부터 받은 사랑, 후배에게 돌려줄 터”

서울대총동창회내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관악회가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지도 올해로 20년이 넘었다. 이에 본보에서는 그동안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동문들을 초청, 요즈음 근황과 후배들을 위한 본회 장학사업의 발전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본보 李世震편집주간

참 석 자

張夏熔 (85년 師大卒·사회교육과)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安惠鮮 (89년 音大卒·기악과)

피아니스트, 이화여대·수원대·중앙대 강사

梁在雄 (94년 師大卒·체육교육과)

영동고등학교 체육교사

林太均 (95년 工大卒·전기공학부)

삼성전자 반도체 SOC제품기술팀 주임

崔芝瑄 (96년 社會大卒·지리학과)

사회대 전산실 조교, 대학원 박사과정

李定垠 (97년 經營大卒·경영학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입법조사관

洪禎秀 (95년 大學院卒·생물학과)

자연대 생명과학부 박사과정

사회: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을 포함해 역대 서울대총동창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동문들은 모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었던 분들이었으며, 현재 사회 각계에 뿌리를 내려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량으로 사회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하고 계시는 일과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張夏熔: 저는 사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후,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LG화재에서 3년간 근무해오다 지난 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또한 요즈음 MBC와 SBS에서 방영하는 음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칼럼연출가로 활동중입니다.

安惠鮮: 저는 음대 기악과를 졸업,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7년간 유학생활을 했으며, 지난 98년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수원대, 중앙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피아니스트로 연주회도 꾸준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梁在雄: 사대 체육학과를 졸업한 저는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영동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해오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받은 교육수준만으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올해 2학기부터 모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林太均: 저는 공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병역특례로 삼성전자 반도체 SOC제품기술팀에 입사, 주임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崔芝瑄: 저는 사회대 지리학과

를 졸업했으며, 올 2월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회대 전산실 조교로 일하면서, 사회대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관리·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학기 때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이 일을 통해 교수님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깨달았고 옆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李定垠: 저는 97년 경영대를 졸업했으며, 98년 입법고시에

들 가운데 대표로 나오게 되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 자신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으며, 이 때문에 기쁜 마음보다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장학생 출신 「모임」 결성할 때다

혜택받는 재학생과도 연결토록

합격, 작년부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률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洪禎秀: 저는 대학원 생물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서울중앙병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오다 작년부터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직은 학생인 만큼 수업에 충실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후배들을 격려해주기 위해 지난 8월 23일 개최된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에 安惠鮮동문께서 참석해주셨는데, 후배들에게 직접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安惠鮮: 지금까지 동창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수많은 학생

사회: 서울대총동창회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80년 1월 4일 재단법인 관악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때부터 모교 후학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 2000년 2학기까지 학기당 연인원 2천1백여명에게 22억원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은 많은 동문들이 한데 모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후배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결성된다면 여러모로 동창회 장학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믿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梁在雄: 모교를 졸업한 후, 과거에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은혜를 후배들에게 다시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에 앞서 우선 장학생 출신 동문들 모두 책임의식을 가

져야 한다고 봅니다.

林太均: 아직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추후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들로 구성된 모임이 결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

먼저 총동창회에서 각 기수별로 대표되는 동문을 선정, 이들에게 매년 장학금 혜택을 받는 재학생들을 관리하게 하여 꾸준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창회에서 장학혜택을 입은 동문들은 「모교와 동창회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라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요즈음 각 학교마다 장학동문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총동창회도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한다면 동문들이 동창회 장학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회: 미국 MIT대나 하버드대의 경우, 학교와 동문간의 휴먼네트워크 시스템이 일체화되어 동창회가 학교 홍보와 기금 모금 및 운영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IMF 이전까지는 대기업들의 학교에 대한 기부금이 많았으나,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생겨 예전처럼 학교와 동창회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발전기금, 장학혜택 등은 동문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학생 선발 기준과 현행 장학제도에 대한 문제, 장학생 수혜대상 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張夏熔: 장학생을 선발할 때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측에서는

입니다.

李定垠: 장학금을 받던 시기에는 잘 몰랐지만, 졸업 후 매월 우송되는 동창회보를 보면서 과거에 받았던 장학금 혜택에 대한 환원과 동창회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특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학생 출신 동문 모임을 구성한다면 그 의미도 클 뿐 아니라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의 기회도 더욱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싶은 후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입법고시에 대한 정보와 기타 관련 내용들을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張夏熔: 장학생 출신 동문들은 모교와 동창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후배들에게 환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張夏熔



梁在雄



安惠鮮



林太均

장학대상자에게 재산세 증빙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조교를 통해 가정 형편을 가늠할 수 있지만, 동창회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학교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창회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데 있어 기금확충의 어려움이 뒤따른다면 주어진 한도금액내에서 등록금 전액이 안 되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梁在雄: 저는 장학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동창회에서, 장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조건들을 하나의 문건으로 작성, 학교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들이 그 조건에 맞는지를 명확히 체크한 후, 장학생을 선발한다면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林太均: 장학생 선발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검증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지 여부를 서류만이 아닌 실제의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李定垠: 지금까지 장학금이 지급됐던 과정을 보면 동창회에서는 학교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동창회가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학생 수의 2배수나 3배수의 추천을 우선 모교에서 받아 독자적인 심사서류를 거친다면 장학생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따로 수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崔芝瑄: 저는 과거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어떤 취지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어떤 단체인지를 제대로 알고 난 후에는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과



洪禎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총동창회의 경우, 분명 의미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장학생으로 어떻게 선발됐는지 그 과정을 전혀 모른 채 장학금을 받았다면 과연 동창회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되더군요. 적어도



李定垠

부분 장학금을 받는다면이라도 나머지 학비를 벌기 위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또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전액등록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惠鮮: 일단은 공고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崔芝瑄

니다. 또한 학생들은 대학생들을 끝으로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창 시절, 옛날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므로 재학시절에 보내는 매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에 새기며 대학 생활을 한다면 분명 존경받고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李定垠: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있는 공직을 선택했는데, 모교 출신들을 보면 학교 이름값에 의지해 그 자리에서 안주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 할까요. 물론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 뭔가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林太均: 저는 졸업 후 회사를 다니는 것이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학시절,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자신의 숨은 끼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합니다. 이에 후배 여러분들도 모교 출신이라는 특혜 하나만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梁在雄: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모교 야구부 선수생활을 졸업할 때까지 했었는데, 졸업한 후에도 모교와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을 대학시절에 한가지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張夏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모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특권이며, 졸업한 대부분의 동문들이 사회 조직의 일원으로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백이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남을 배려하며 살아간다면 본인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 감사합니다.

동창회가 독자적으로 선발해야 웹사이트 통한 장학사업 홍보도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내용의 장학금이라는 것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한다면 그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동창회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洪禎秀: 만약 제가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장학생을 뽑는다는 공고를 낸 다음,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신이 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 각 학과 단과대별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학생들에 관한 정확한 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각도 수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발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도 이러한 방안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한편 저는 앞서 말씀하신 張夏熔동문과 다소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이 아닌

경우,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규제 없이 공고를 낸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이 신청을 하겠으나 이는 어느 정도의 규제를 둔다면 해결될 것이며, 정말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사 회: 마지막으로 모교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安惠鮮: 일단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성적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자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도 품성이나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서울대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洪禎秀: 우선 자기 분야에서는 1인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싶습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崔芝瑄: 저는 후배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동창회관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어머니도 참석하셨는데, 저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더군요. 오늘 이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다고 말씀드렸을 때에도 「가문에 영광」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나면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수록 부모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위의 친구들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닌 같이 동고동락하고, 서로를 칭찬해줄 수 있는 후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

베푸는 보람, 나누는 기쁨을 特志奨學會에서 찾아주십시오

『특지장학회』 제도란?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재단법인 관악회」 산하에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기부와 출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 또는 유증, 증여, 상속에 의해 출연자 명의의 특지장학회를 설립, 운영하여 출연자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등록금과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지장학회』 설립의 利點

- ▶ 장학사업에 뜻은 있으나 재단설립과 운영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행정적인 문제나 운영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연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사용되어 개인적으로 장학재단 설립시 소요되는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및 법인세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지장학회』 운영방법

- ▶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 내지 출연 재물을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투자하여 수입이자 등의 80% 내외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에 사용하고 20% 내외는 원금에 산입함으로써 장학금이 영구히 보존되는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 ▶ 기금의 운영 방법과 절차는 출연자와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진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장학생 선발과 지급은 출연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출연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본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출연자에게는 감사패 수여와 그 존함을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 있는 「永世不忘錄」에 현액하여 높으신 뜻을 영구히 기립니다.
- ▶ 출연자의 사망등 유고시에는 「특지장학회」의 모든 권리(선발, 지급, 운영)가 출연자께서 지정하는 분에게 귀속되어 영구히 운영됩니다.



『특지장학회』 운영방법 (2000년 8월말 현재)

- ▶ 14개 특지장학회(1구좌 5천만원) 35개 구좌 운영중
- ▶ 3개 기금장학회 운영중
 - 기금장학회는 특지장학회 설립의 뜻은 있으나 출연금이 부족하여 장학회를 우선 설립후, 추가 납입을 약정하고 운영중인 장학회입니다.
- ▶ 특지장학회는 현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정석규 특지장학회는 국민주택 채권으로 설립)과 상장·비상장주식(이세진 기금장학회는 이미 출연한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을 출연함), 그리고 현금성과 유동성이 있는 부동산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지장학회』 설립연령

- 2000년 8월말 현재(출연순)
 - 장학생수는 학기당 연인원

홍신대 특지장학회(6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389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344,935,383원(조흥은행, 동양증권)
 - 대상 : 전교 상인고교 졸업생후 모교 재학생

이남(김주진) 특지장학회(10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319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650,122,425원(조흥은행, 동양증권)
 - 대상 : 이남고교 입학생후 모교 재학생

이광여 특지장학회(2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299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110,275,064원(신한은행, 동양증권)
 - 대상 : 인천 신영고교 졸업생후 모교 재학생

김찬숙 특지장학회(4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교수 1명, 재학생 1390명 연구비,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206,305,183원(신한은행, 동양증권)
 - 모교 장학금과 교수후 재학생

장성일 특지장학회(1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590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52,377,128원(동양증권, 제2연회)
 - (주)이성 임직원 재학생후 모교 재학생

박주하 특지장학회(1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590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49,628,830원(신한은행)
 - 모교 공대 조선대공과대학 재학생

안문숙 특지장학회(1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590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50,977,897원(동양증권)
 - 모교 간성고교 재학생

장필도·이지형 특지장학회(2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590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98,062,830원(동양증권)
 - 모교 공대 1명, 차대 1명

이금옥·황해근 특지장학회(1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590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50,420,984원(동양증권)
 - 모교 재학생

차복희 기금장학회(2천 5백만원)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590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21,474,596원(동양증권)
 - 모교 지리산고교 재학생

이세진 기금장학회(1천만원 + (주)H&S 2,000원)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590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10,569,470원(동양증권, 제2연회)
 - 모교 법대공과 재학생

이도권·이찬진 특지장학회(1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299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48,364,710원(신한은행)
 - 모교 재학생

이종기 특지장학회(2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590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90,969,745원(동양증권)
 - 양 : 한양고교 졸업생후 모교 재학생 공대 2명, 공대 2명

정석규 특지장학회(1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299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46,942,000원(신한은행)
 - 모교 공대 원광대학교 재학생

최희과 동창회 기금장학회(3천만원)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299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29,081,704원(조흥은행)
 - 모교 최희과동창회 재학생

박영문 특지장학회(1구좌)

- 99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5900명 연구비 지급
 - 운영현황 : 48,000,000원(신한은행)
 - 모교 보건대학 재학생후 연구 학위논문 발표자

김영순 특지장학회(2구좌)

- 2000년 출연후 모교 재학생 4900명 장학금 지급
 - 운영현황 : 100,382,427원(조흥은행)
 - 모교 재학생후 공대 1명, 차대 1명

건강을 지킵시다

가장 기본적 처방은 사랑

인간이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랑을 낳는 것이다. 그 사랑이 꾸준한 애정과 관심 속에서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지면 기적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 기적이란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뜻하며, 흔히 『이런 환경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기적이야』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낳기 위해 우리의 사랑에게 최대의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애정과 관심의 결핍으로 정신이나 신체 곳곳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저 수수방관적 슬픔만을 표현할 수는 없지 않는가!

아이들이 아플 때 애정과 관심을 확인시킬 수 있는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우선 증상에 맞는 병원(과)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 화상을 입은 경우, 응급으로 찬물로 씻어준 뒤 일반외과를 찾아야 한다. 다른 과에 가서 치료가 지체되면 흉터뿐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

2. 팔을 전혀 못쓰고, 만지면 아프다고 할 때 대개는 팔이 빠졌거나 어깨 빗장뼈가 부러진 경우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정형외과를 찾으면 쉽게 해결이 된다.

3. 38℃ 이상의 고열이 날 경우, 찬물수건으로 머리의 열을 식혀주어야만 한다. 뇌가 열에 녹아 손상을 입게되면 절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설사를 할 경우, 우선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토하지 않는다면, 설탕과 소금의 비율이 4:1이 되도록 간을 맞춘 따뜻한 보리차를 먹여 탈수를 방지해주어야 한다.

5. 토할 경우, 음식물이 기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옆으로 눕여야 하며 환기를 해주고 입안을 물로 헹구어



李貞子(69년 看護大卒)
충무병원 행정부원장

주면 조금은 진정이 된다. 토하는 것이 완전히 멈추었다고 생각되면 설탕과 소금(4:1의 비율)이 들어간 따뜻한 보리차를 먹이는 것이 좋다.

6. 천식인 경우, 대개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형제가 있기 쉽다. 이때는 무엇보다 집안의 청결이 요구된다. 또한 환기를 자주 해주어야 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오리털 이불보다는 솜이불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 이사를 하면 깨끗이 나올 수도 있다.

7. 아이들이 바깥출입에서 돌아오면 손부터 씻는 습관을 길러주자. 유행성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우선 다른 형제와 격리시키고 잘 관찰하여 증상들에 맞는 치료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간단히 소개를 했지만 가족간의 사랑은 어떠한 치료약보다 훨씬 잘 듣는 특효약이다. 어릴 적 「엄마 손은 약손」하며 아픈 배를 문질러주면 사랑의 온기로 배는 따뜻해지고 아픔이 없어졌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심한 질병도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었다는 기사를 우리는 가끔 보게된다. 사랑은 정말 기적을 낳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기적을 낳는 사랑을 키워가도록 하자.

추억의窓

산악반 가입, 일요일마다 선·후배의 정 다져

安秉煜교수의 윤리학 강의에 감명 받기도

金正均(65년 齒大卒)치과의원장

과거 문리대 운동장에서 가진 전교생 입학식때 교가 몇 번 따라 부른 것으로 대학 생활은 시작되었다. 59년 우리 나라 치과대학에 예과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첫 입학한 학년이다 보니, 서울이 객지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설픈기 짝이 없는 기분이었다.

소속은 문리대 치의예과로 문리대 배지를 달고 다녔으나 공부하는 교실은 문리대와 구름다리로 연결된 법대 내의 한 교실 2개가 우리들 몫이었다. 특히 고등학교와는 다른 교육 및 생활방식으로 모든 것이 서툰 가운데 대학생활을 해나갔다.

6개월을 그렇게 지내고 청량리 예과 건물로 이사하면서부터 대학생활의 참 맛을 느꼈다. 전쟁으로 파괴된 청량리 예과 건물이 수리되어 의예과와 함께 생활하면서 넓은 교정에 여유 있는 강의실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교과내용엔 전공과는 다소 무관한 교양과목이 많았으며, 교양과목 중에서 철학자 安秉煜교수의 윤리학 강의는 당시 우리들에게 많은 감명을 준 것으로 기억된다.

모교 재학시절 산악반에 가입하여 일요일마다 북한산, 도봉산 등 근교 산행을 자주 했으며,

이렇게 맺어진 선·후배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는 치대 동창회에서조차 부러움을 살 정도이다.

예과 2년 때 4·19혁명이 터졌다. 여학생들은 학교에

서 가방을 지키고, 남학생들은 광화문의 국회의사당과 시청을 거쳐 을지로 입구 내무부 건물 앞에서 연좌 데모를 하다가 저녁 늦게 학교로 돌아온 일도 있었다. 특히 이 시절은 치과의사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필요한 수련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청량리 예과 생활을 마치고 시작된 본과 4년의 생활은, 지금은 한국은행 신관건물이 들어선 소공동에서 시작되었다. 본과 1학년 때 5·16혁명의 칼날아래 모교외에 유일했던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이 폐쇄되면서 그 학생들의 일부가 우리 대학으로 편입됐으며, 그 반대시위로 대학이 시끄럽기도 했다.

4학년 원내생 때는 담당 환자가 없는 학생들이 3층 강당에서 카드놀이를 하다 학생과장인 金仁哲교수한테 혼난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많은 동문들이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다른 학과와는 달리 우리는 6년 동안을 고등학생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와 실습으로 일관했다. 덕분에 그 기간 동안 우정을 다졌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동문으로 또 동료 치과의사로서 동고동락하고 있다.



본과 1년 당시 가졌던 도봉산 등반, 좌로부터 두 번째 필자.

동 정

수 상

▲趙義煥(58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오는 9월 18일 제45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받을 예정임.

▲李時潤(58년 法大卒·경희대 법대 학장)=지난 8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호사 대회에서 제31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함.

▲鄭世煜(60년 法大卒·명지대 교수)=통합 농협 중앙회 설립위원장으로 농협·축협·인삼협의 3개 중앙회를 원만히 통합, 출범시킨 공로로 최근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기술협력 및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기사작위」에 임명됨.

▲姜炫三(6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오는 9월 18일 제45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받을 예정임.

▲許永燮(64년 工大卒·녹십자 회장)=지난 7월 26일 B형 간염 퇴치사업에 참여해 인도네시아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인도네시아 보건 분야 최고 훈장인 「사트리아 바크티 후사다 카르티카」를 받음.

▲趙東一(66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오는 9월 18일 제45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인문사회과학부문)을 받을 예정임.

▲姜錫昊(70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오는 9월 18일 제45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받을 예정임.

이동·선임

▲尹鎔柝(56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8월 31일 탐라대 제3대 총장에 취임함.

▲韓甲洙(56년 文理大卒·한국

가스공사 사장)=지난 8월 7일 농림부 장관에 임명됨.



▲金哲洙(56년 法大卒·前탐라대 총장·本報論說委員)=지난 8월 9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尹鍾赫(57년 文理大卒·홍익대 명예교수)=지난 8월 19일 그리스에서 열린 세계시민대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됨.

▲閔庚甲(57년 美大卒·동양화가)=지난 7월 10일 예술원 회원에 선출됨.

▲李吉女(57년 醫大卒·길의료재단 이사장·醫大同窓會會長)=지난 8월 17일 경원대 제9대 총장에 취임함.

▲宋昌鎭(58년 藥大卒·전주 송약국 대표)=최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83차 국제라이온스 클럽 국제대회에서 국제이사에 선출됨.

▲金璟東(59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8월 9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韓得秋(59년 法大卒·신한투신 상임감사)=지난 8월 2일 영일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黃秉冀(59년 法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7월 10일 예술원 회원에 선출됨.

▲趙準熙(60년 法大卒·변호사)=지난 8월 9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李敦熙(60년 師大卒·모교 교수)=지난 8월 31일 교육부 장관에 임명됨.

▲姜慶植(61년 法大卒·前경제부총리)=지난 8월 20일 동부그룹 금융·보험부문 회장에 선임됨.

▲金勇一(61년 醫大卒·前모교 교수)=지난 8월 31일 가천의

과대학교 제2대 총장에 선임됨.

▲李相完(61년 醫大卒·대전 성심병원장)=지난 7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역 심사평가위원장에 취임함.

▲韓永愚(62년 文理大卒·모교 인문대학장)=지난 8월 7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심의위원회 위원에 위

촉됨.

▲崔公雄(62년 法大卒·법무법인 우방 고문 변호사)=지난 8월 8일 제4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曹源(62년 商大卒·前한국 신용평가 사장)=지난 8월 2일 (주)두산 관리본부 부회장에 선임됨.

▲金政起(63년 法大卒·방송위원회 위원장)=지난 8월 9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辛國煥(63년 法大卒·前공업진흥청장)=지난 8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에 임명됨.

▲李東春(63년 法大卒·前포철부사장)=지난 9월 1일 사이버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전문회사 Ntrak(엔트랙) 회장에 취임함.

▲陳稔(63년 商大卒·기획예산처 장관)=지난 8월 7일 재정경제부장관에 임명됨.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本報論說委員)=지난 8월 15일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에 재위촉됨.

▲李炳宰(64년 文理大卒·前대동브레이크 대표)=지난 7월 1일자로 미국 시사경제 주간지 「Business Week」지의 최고경영자를 위한 국제회의의 사업부 한국지역 총책임자에 선임됨.

▲趙南一(65년 工大卒·한국선

편집주간식

선배에게는 존경을,
후배에게는 신뢰를 일구는 場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총동창회는 물론,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있었습니다. 선배의 후배에 대한 배품과 나눔이 더 없이 훈훈한 자리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커가듯이, 후배 역시 선배의 등을 보며 살아갑니다. 선배가 말만이 아닌 실천으로 후배사랑을 키워 나갈 때 존경을 얻게 되고, 후배 역시 예의바른 품성과 성실한 노력을 보여 줄 때 신뢰를 얻게 되겠지요.

「산다는 것은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생각과 실천을 함께 나누는 것」- 장학금수여식에서의 斷想입니다.

급엔지니어링 사장)=지난 7월 18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에 임명됨.

▲金學俊(65년 文理大卒·대한교총 회장·本會 副會長)=최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제18차 세계대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출됐으며, 9월 5일 명지대 교수에 선임됨.

▲全寅永(65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8월 7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洪淳吉(65년 文理大卒·한국항공대 교수)=지난 8월 1일 한국항공대학 제3대 총장에 선임됨.

▲田允喆(65년 法大卒·공정거래위원장)=지난 8월 7일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됨.

▲崔德一(65년 藥大卒·국립환경연구원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장)=지난 8월 16일 국립환경연구원장에 임명됨.

▲吳允晉(65년 行大院卒·해병대 예비역 소장)=지난 7월 29일 서울 해군회관에서 열린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통합 임시총회에서 신입 총재에 선출됨.

▲南宮堅(66년 文理大卒·前산자부 에너지정책국장)=지난 7월 25일 한국산업도면전산화진흥협회 초대 회장에 취임함.

▲閔丙均(66년 商大卒·前장은 경제연구소장)=지난 8월 1일 자유기업원(舊자유기업센터) 원장에 취임함.

▲朴鍾華(66년 文理大卒·前경향신문 편집국장)=9월부터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로 초빙돼 강의함.

▲梁在均(68년 工大卒·쌍용양회 전무)=지난 7월 5일 쌍용머테리얼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

됨.
▲李丙勳(68년 農大卒·MBC 제작국장)=최근 경원대 법정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에 선임됨.

▲金炳日(64년 文理大入·조달청장)=지난 8월 12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임명됨.

▲金學成(68년 文理大卒·성균관대 교수)=최근 한국詩歌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됨.

▲張錫準(68년 文理大卒·기획예산처 예산실장)=지난 8월 12일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됨.

▲許瑄(68년 文理大卒·농협중앙회 강원 지역본부장)=지난 7월 1일 농협중앙회 사무처장(상무)에 선임됨.

▲崔濟東(68년 法大卒·경북도 기획관리실장)=지난 7월 24일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됨.

▲金信福(68년 師大卒·모교 행정대학원장)=지난 8월 17일 학교법인 경원학원 제6대 이사장에 취임함.

▲朴哲(68년 商大卒·한국은행 부총재보)=지난 7월 22일 한국은행 부총재에 선임됨.

▲崔鴻圭(68년 敎大院卒·중앙대 교수)=지난 8월 17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해빙웨이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됨.

▲李敦求(69년 農大卒·모교 농생대학장)=지난 8월 7~12일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

(11면에 계속)

(10면에 이어)

FRO) 총회에서 국내 최초로 임기 5년(2001년~2005년)의 차기 부회장에 선임됨.

▲金聖二(69년 文理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8월 21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대 위원장에 임명됨.

▲金夏中(69년 文理大卒·대통령 의전비서관)=지난 8월 27일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임명됨.

▲林來圭(69년 文理大卒·특허청 차장)=지난 8월 12일 특허청장에 임명됨.

▲朴淳和(69년 商大卒·산업은행 투자금융부장)=지난 7월 25일 산업은행 이사에 선임됨.

▲李晶載(69년 商大卒·금감위 부위원장)=지난 8월 11일 재정경제부 차관에 임명됨.

▲崔圭鶴(69년 行大院卒·국가보훈처장)=지난 8월 27일 대통령 복지노동 수석비서관에 임명됨.

▲金東億(70년 文理大卒·前대교 정보화부문 상무)=지난 7월 12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됨.

▲孫陽德(71년 農大卒·前SBS 심의부장)=지난 7월 21일 SBS 미디어넷 전무이사에 선임됨.

▲明東院(71년 文理大卒·한국일보 기획조정본부 부분부장)=지난 8월 16일 한국일보 판매본부장에 선임됨.

▲嚴洛鎔(71년 法大卒·재정경제부 차관)=지난 8월 17일 산업은행 총재에 임명됨.

▲金成豪(71년 商大卒·서울지방국세청장)=지난 8월 12일 조달청장에 임명됨.

▲朴奉欽(72년 商大卒·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지난 8월 19일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에 임명됨.

▲鄭健溶(73년 法大卒·ASEM사업 추진본부장)=지난 8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됨.

▲韓成澤(73년 法大卒·前국무총리실 경제심의관)=지난 7월

12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에 임명됨.

▲李南基(73년 行大院卒·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지난 8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安炳燦(75년 新大院卒·경원대 교수)=지난 8월 21일 경원대 행정대학원장에 선임됨.

▲金容煥(82년 社會大卒·기획예산처 정보화기획팀장)=최근 기획예산처 정보화담당관으로 승진함.

▲金弘善(83년 工大卒·시큐어소프트 대표)=지난 8월 23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제3차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姜吉夫(84년 環大院卒·한국감정원장)=지난 8월 12일 건설교통부 차관에 임명됨.

▲高世勳(87년 大學院卒·중소기업은행 비서실장)=최근 중소기업은행 뉴욕지점장에 선임됨.

▲尹美良(91년 行大院卒)=최근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에 임명됨.

▲朴承緒(5기 AMP·변호사)=지난 8월 9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張永喆(16기 ACAD·前국회의원)=지난 8월 7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姜美求(32기 ACAD·국회사무차장)=지난 7월 4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임명됨.

행사

▲李應百(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7월 24일~26일 사단법인 重峯 趙憲선생 기념사업회장 자격으로 충남 대둔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충남 도내 고교생 44명에게 人性교육 수련을 시킴.

▲白樂皓(52년 音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7월 23일 뉴욕주립대학 매켄나음악당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집」 출간기념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洪淳茂(58년 美大卒·전주교육대 교수)=지난 8월 18~23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정년퇴

임 기념전을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美大同窓會長)=지난 8월 8~24일까지 갤러리 우덕에서 朴淑姬(62년 美大卒), 朴香淑(62년 美大卒), 金芝希(63년 美大卒), 丁玉蘭(66년 美大卒), 李貞淑(69년 美大卒)등문 등과 함께 「섬유미술 10인의 새로운 모색전」을 가짐.

▲李炳漸(58년 法大卒·한국사료협회장·AARDO극동지역 대표)=지난 9월 1일 AARDO(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회원국 중 13개 국가의 공무원 18명을 초청, 회원국간의 협력과 우호증진을 다짐.

▲鄭宗澤(58년 法大卒·충청대학장·本會 副會長)=지난 8월 24~29일 중국 연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남북 태권도 축전에 충청대 선수단을 인솔해 참가함.

▲林相辰(60년 美大卒·전북대 교수)=지난 8월 8~15일까지 전북대 문화관에서 정년기념전을 개최하고, 18~27일까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生命의 노래-519」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짐.

▲姜碩熙(60년 音大卒·계명대 특임교수)=최근 일본 산토리 음악재단이 선정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 22인」에 선정됨.

▲李基俊(61년 工大卒·모교 총장)=지난 8월 7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9일까지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함.

▲姜燦均(63년 美大卒·모교 교수)=최근 강남구 신사동 표갤러리에서 다섯 번째 개인전을 가짐.

▲趙嘉允(64년 法大卒·前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지난 7월 20일 대중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함. (연락처: 739-3621)

▲南喆鉉(64년 保大院卒·경산대 교수·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회장)=지난 8월 9일 이화여대 교육관

에서 3주간의 보건교육사 과정을 마친 1백32명의 수료자에게

제2급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수여함.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8월 8~12일 베트남을 방문, 「쭈꾸엔나」 과학기술환경부장관과 제1차 한·베트남 환경장관 회의를 갖고 환경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팜자 키엠」 부총리를 예방하고 양국환경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金春子(67년 美大卒·한국미협 회원)=9월 1~29일 독일 하젤뤼너 시립갤러리의 초대를 받아 수채화전을 가짐.

▲曹相鎬(67년 行大院卒·창조장학회 이사장)=지난 8월 26일 서울 강북 대성학원 소강당에서 2000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7월 25~28일까지 일본 織研신문사 주최 해외주재기자 연수회 및 IFF(International Fashion Fair)展 참가를 위해 동경에 다녀옴.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특임본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8월 11일 동경에서 열린 70만 재일동포를 인터넷상으로 한데 묶는 「Hanternet 재팬 개국식」에 참석, 재일 대한민국 민단과 조인식을 가짐.

▲申洵雨(74년 行大院卒·산림청장)=지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몽골 및 중국을 방문, 몽골의 사막화 방지와 중국 북경지역 식수원 확보를 위한 양국간 조림 협력사업을 합의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부사장·국제PR협회 한국대표)=지난 8월 24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벤처기업의 위기관리 PR전략」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가짐.

▲朴圭媛(76년 音大卒·동덕여대 교수)=지난 8월 2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許丁和(84년 音大卒·순천대 교수)등문과 함께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가짐.

▲玄在喜(76년 音大卒·세종대 교수)=지난 8월 25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廉寶英(76년 音大卒)등문과 함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을 가짐.

제2급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수여함.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8월 8~12일 베트남을 방문, 「쭈꾸엔나」 과학기술환경부장관과 제1차 한·베트남 환경장관 회의를 갖고 환경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팜자 키엠」 부총리를 예방하고 양국환경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金春子(67년 美大卒·한국미협 회원)=9월 1~29일 독일 하젤뤼너 시립갤러리의 초대를 받아 수채화

전을 가짐.

▲曹相鎬(67년 行大院卒·창조장학회 이사장)=지난 8월 26일 서울 강북 대성학원 소강당에서 2000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7월 25~28일까지 일본 織研신문사 주최 해외주재기자 연수회 및 IFF(International Fashion Fair)展 참가를 위해 동경에 다녀옴.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특임본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8월 11일 동경에서 열린 70만 재일동포를 인터넷상으로 한데 묶는 「Hanternet 재팬 개국식」에 참석, 재일 대한민국 민단과 조인식을 가짐.

▲申洵雨(74년 行大院卒·산림청장)=지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몽골 및 중국을 방문, 몽골의 사막화 방

지와 중국 북경지역 식수원 확보를 위한 양국간 조림 협력사업을 합의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부사장·국제PR협회 한국대표)=지난 8월 24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벤처기업의 위기관리 PR전략」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가짐.

▲朴圭媛(76년 音大卒·동덕여대 교수)=지난 8월 2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許丁和(84년 音大卒·순천대 교수)등문과 함께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가짐.

▲玄在喜(76년 音大卒·세종대 교수)=지난 8월 25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廉寶英(76년 音大卒)등문과 함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을 가짐.

▲諸成鎬(81년 法大卒·중앙대 교수)=최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지평서원)」이란 책을 출간함.

▲金能求(88년 人文大卒·e원컴 대표)=지난 8월 10일 국내 최초 정치·선거전문사이트인 「e원컴(www.ewincom.com)」을 출범함.

▲權廷善(89년 音大卒·단국대 강사)=지난 9월 6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니스트 李昭殷(93년 音大卒)등문 등과 함께 제25회 쇼팽협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林恩愛(95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8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하이든, 드뷔시, 리스트의 작품으로 귀국독주회를 가짐.

▲金莊坤(37기 ACAD·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지난 7월 27일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강당에서 제9회 전국 중·고교생 원자력 작품모집 시상식을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이종욱(99년 工大卒)군·홍은정 양=9월 23일 12시 30분.

*박희원(93년 工大卒)군·곽선아 양=9월 23일 14시.

*김동범(93년 經營大卒)군·김도희 양=9월 23일 15시 30분.

*황병선(94년 師大卒)군·이미정 양=9월 24일 14시.

*성기훈(96년 社會大卒)군·서정민 양=9월 30일 14시.

*심형민(87년 工大卒)군·오명희 양=9월 30일 17시.

*김호일(齒大 在學中)군·강은진 양=10월 1일 12시 30분.

*권세훈(89년 農生大卒)군·이혜경 양=10월 7일 15시 30분.

*김범석(99년 工大卒)군·정수연 양=10월 8일 12시 30분.

*정기창(99년 工大卒)군·김영지 양=10월 8일 14시.

*권혁규(88년 社會大卒)군·박혜숙 양=10월 15일 11시.

*최중환(95년 工大卒)군·백홍미 양=10월 15일 13시.

*류병희(95년 農生大卒)군·강시랑 양=10월 15일 14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을 이용하시는 신랑·신부에게는 사이판 또는 제주도 호텔 무료숙박권을 드립니다.

학술원 李鎬汪 회장



예술원 閔庚甲 회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쇄신해갈 계획

지난 8월 26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28대 회장에 취임한 漢灘 李鎬汪(54년 醫大卒·고려대 명예교수)동문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李회장은 바이러스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지난 76년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을 옮기는 「한타 바이러스」를 발견, 91년에 「한타박스」라는 예방백신을 개발했다. 세계적으로도 바이러스 발견과 그 예방백신 개발에 모두 성공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생물학, 특히 바이러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6·25이후 우리 나라에는 각종 질병이 창궐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뇌염, 천연두가 심각했습니다. 일종의 사망감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게 됐는데 출혈열 환자가 많아지면서 미군이 많이 주둔해 있는 관계로 韓美 공동관심사가 됐고, 57년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회환원 차원에서 「한타 생명과학재단」을 만들어 매년 1명에게 「한타상」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사 하나로 여러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다목적 백신을 완성, 특허를 받아 생산단계에 들어갔으며 러시아의 두가지 출혈열 예방 주사약은 등록 과정에 있습니다』

—학술원 회장에 취임한 소감은.

『지난 81년 정회원에 선정되었을 때도 무척 자랑스러웠는데 분과 회장, 자연과학부 회장 등 9년간 집행부로 활동해오다 이렇게 회장에 선출되고 보니 학자로서 마지막 영광을 안은 것처럼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직소개와 활동사항은.

『학술원은 자연과학은 물론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원로들이 모인 국내 유일의 두뇌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선출직인 회장, 부회장, 자연과학부 회장, 인문·사회과학부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되며, 자연과학부는 5개 분과, 인문·사회과학



부는 6개 분과로 나뉩니다. 약 14명으로 구성된 각 분과는 연구비를 받아 매년 2건씩 연구활동을 합니다. 또 10여개 국가의 학술원과 교류하면서 국내외 심포지엄, 국제학회, 정책토론회 등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2년 임기동안 사업 계획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금씩 리노베이션해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한 건의와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노벨상 수상자 등의 초청강연을 듣는 등 국제학술대회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학술원 회원 선임과 학술원상 수상자 선정 등은 더욱 엄격히 자리매김할 생각입니다』

국제유행성출혈열학회 회장, 바이러스학회 명예회장, 대한백신학회 회장, 美 철학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회원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李회장은 金銀淑여사와 형제를 두었다. 특히 장남 李成一(85년 工大卒·성균관대 교수)·만며느리 南基善(85년 家政大卒)동문, 차남 李根(86년 社會大卒·외교안보연구원 교수)·둘째 며느리 韓周娟(87년 師大卒)동문은 美 위스콘신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다. (變)

“자기만의 세계·독특한 색깔 지녀야”

지난 7월 10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임된 西山 閔庚甲(57년 美大卒)동문. 사그러들 줄 모르는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閔화백을 만나 작품에 대한 그의 철학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예술분야에 있어서 평생 자기 세계를 정립하고, 그 분야 발전에 공헌한 분들이 예술원 회원으로 선정돼 왔기에 무척 고맙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보다 더 연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구속받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개인전을 자주 갖지 않는 이유는.

『작품활동은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79년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능력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2~3년 동안 작업을 해서 전시회를 가질만 하면 그동안의 작품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좀더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 발표해야겠다는 욕심이 앞서거든요』

—「산」 주제의 작품이 많은데.

『데뷔시절에는 주로 인물화를 그렸습니니다만,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고 산만큼 움직임이 없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 작품에 나타난 산은 어떤 특정한 산이 아닙니다. 마치 분열하기 이전의 태고의 모습으로 다시 조합된 듯한 산으로 환원되지요. 그 산이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인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산의 아름다움이나 신비한 모습을 영적인 교감을 통해 재현시킬 따름입니다』

—회고전 계획은.

『회고전은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전부 미완성입니다. 힘이 남아 있는 그 순간까지 자기 세계, 색깔을 갖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는 과정만이 있을 따름이지요. 다만 50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업선해서 제 그림세계의 전 과정이 담긴 화집을 9월 15일에 발간하고 2년 이내에 두 번째 개인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예술분야에 몸담고 있는 후학들에게 한 말씀.

『대학시절에는 진지하게 파고드는 것이 있어야 할텐데, 요즘 후배들을 보면 한번의 기회를 노려서 너무 빨리 뜨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습우화 속의 개미보다 베짚이를 선호해서 힘 안들이고 하루 아침에 수십억, 수백억을 만들려는 조급한 생각을 갖고 있지요. 일부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자기의 세계를 주입시켜 자기 아류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초를 닦도록 지도해줘야지 자신의 세계로 물들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閔화백은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한국미술대전 심사위원, 88올림픽 세계현대미술제 운영위원, 영남대·동덕여대·원광대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국전 특선, 문화예술상, 올림픽 旗章 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가족으로 白玉文 여사와 1남1녀 두었으며, 만사위 劉南碩(80년 法大卒)동문이 성남지원 수석 부장관사로 있다. (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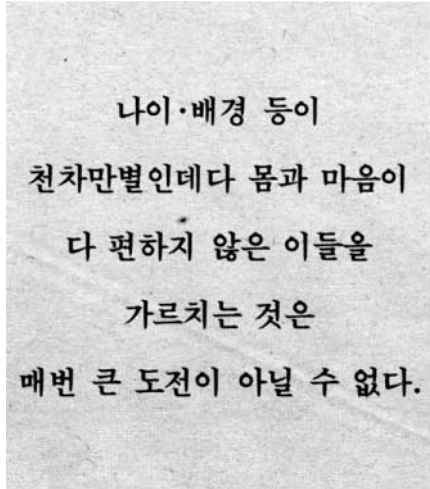
「마리아의 집」을 향해 가며

劉仁愛(72년 師大卒)前봉천여중 교사

1982년 미국에 가서 약 2년 동안 살면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자신도 아기 엄마이면서 시간을 내어 맹인들에게 차편을 제공하거나 책을 읽어주는 사람, 병원 로비에서 상심한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차나 커피를 권하며 위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은 내게 작은 문화 충격으로 다가 왔었다.

당시 내게 영어를 가르쳐준 헬리도 세 아이의 엄마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거나 남에게 맡기고 갓난애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으며, 또한 미국 가정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헬리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린아이들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나 역시 미국 문화에 손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작년 여름 15년 만에 헬리를 다시 만났는데 그녀는 아직도 그때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귀국 후, 그 영향으로 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인 「마리아의 집」과 인연을 맺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도움을 주게 되었다. 춘천 시내에서 좀 벗어나 있는 마리아의 집을 지금은 손수 차를 운전해서 가지만 그때는 학곡리(鶴谷里)행 버스를 30분 정도 타고 가 큰길에서 내려 다시 10여분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마리아의 집을 찾은 것이 1984년 11월

부터였으니 차편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가끔 달고(?) 다녔던 네 살 박이 막내가 이제 대학 1학년생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10여년 전 마리아의 집을 향해 가면서 마음속으로 읊조리던 그 기도를 아직도 되뇌이며 간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저들을 위로하고 주님을 알게 도와야 하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미혼모들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삶에 대해,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총체적으로 감각화된 것을 절감할 수 있다. 십여 년 전에는 미혼모들에 대한 교양 강좌 사이사이에 간단한 등공예, 종이 접기, 지점토 공예 등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은 잠시 동안이라도 이들에게 조용한 가운데 행복감 같은 것을 주었던 것 같다. 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려고 춘천 중앙도서관에 이동 도서 차량을 마리아 집으로 경유하여 운행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미혼모들은 예전의 미혼모와는 매우 달



라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관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성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쪽으로 교양강좌 내용을 일부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 지적 수준, 배경 등이 천차만별인데도 우선 재미있지 않으면 따라오지를 않아, 몸과 마음이 다 편하지 않은 이들을 가르치고 위로하는 것이 매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마리아의 집을 뒤로 하고 나올 때는 마음이 착잡하다. 어린 나이에 임신의 고통 속에 있는 「여자」들과 버려질 「아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아이만 만들고 전혀 책임질 줄 모르는 「남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학곡리에 철따라 그려지는 자연이 좋고, 그곳에서 애쓰시는 수녀님들을 포함한 봉사자들의 작은 정성들을 체험하는 것이 좋다.

거꾸로 보는 절제의 미학

權賢玉(83년 藥大卒)중앙대 예술대학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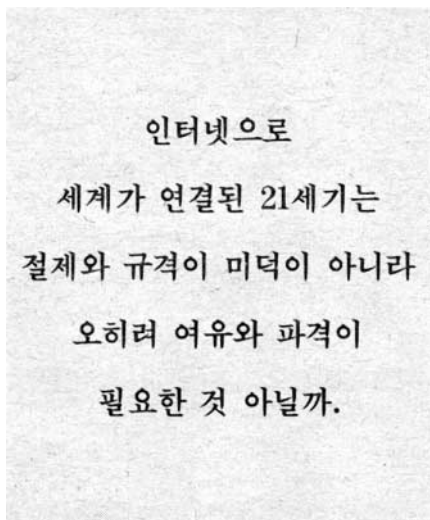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고 어느 작가는 말했다. 나야 것처럼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는 경험도 없고 외국에서 살지도 않았지만 참으로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언어가 다르고, 풍속도 다르며, 역사 또한 다르니 그야말로 남의 집 제사 같은 것이다.

내가 밟지 않고 지나친 지뢰가 더 많을 것이며, 그래서 나는 처음 일본으로 가면서 다만 내가 마주치는 것에 솔직하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은 떠나기 전부터 열대야가 좀 잦아지는가 싶었지만 한낮은 31도를 오르내렸다. 일본은 한 술 더 떠 34도와 36도 사이에서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다.

오전 10시가 훨씬 넘은 시각 일본 지하철역. 하나같이 무표정한 사람들이 한 손에는 양산이나 서류 가방을, 물에 적신 손수건을 쥔 다른 한 손에는 정기관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더위나 피로에서 오는 짜증의 기미도 없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을 뿐이었다.

서울 출근 시간 신도림역 만큼의 거대한 사람 물결이 다른 방향으로 걷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듯 도도히 흘렀다. 땅 속 미로를 통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들, 개미군단이란 말은 혹시 지하철을 타러 가는 일본인을 보고 지어낸 말이 아닐까 잠시 엉뚱한 생각을 했다. 「절제」가 숨막힐 수 있다는 희귀한 체험이었다. 그 숨막힘, 압박



감이라니. 어디를 가나 빈틈없고 정리된 그 곳은 공기마저 희박할 것 같았다.

『국민들은 분수에 맞는 좁은 집에서 살며, 30분씩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서 지하철로 출근하고, 700엔짜리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운다』 일본을 칭찬하며 흔히 하는 말이다. 누구나 다 감탄하는 일본인의 검소함에 솔직히 나까지 짓눌리고 싶지는 않았다. 이것도 다 국민적 열등감일 테지만.

나라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적 富國이지만 국민은 여전히 패적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 연민을 느꼈다고 한다면 지나친 감상인가? 나라에 둘러준 富의 대가로 국민은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지하에서 끊임없이 걷고 지

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탄다. 일본인의 「갈아타는 지하 인생」을 보고 있노라니 개인과 괴리된 국가 경제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라를 살찌우기 위함이기 이전에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닭과 계란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일본이라는 무형의 나라보다는 길을 물으면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소 데려다주기까지 하는 친절 한 사람들이 더 마음에 와 닿는데 어쩔 것인가.

나는 빨리 확 트인 공간으로 나가 물기를 느끼고 숨도 좀 쉬고 싶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많이 걷는다고 투덜대던 예술의 전당 마당이며, 국립도서관 숲이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서 찾아가던 곳이 오사카城 공원이었다.

하지만 어디나 복병은 있는 법, 누가 그랬던가 오사카에는 역이 너무 많다고. 난마 같은 노선을 알보고 어렵짐작만으로 JR 전철을 타고 「오사카조코엔」역에 내린 것이 실수였다. 반대편에 들어선 것이다. 너무나 한적해 음산하기까지 했다. 너른 곳 타령이 싹 가셨음은 물론이다. 잉어가 노는 坂字가 쪽 둘러쳐져 있는 것이 근처에 성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끝없이 펼쳐진 풀밭에 텐트만 줄지어 있었다. 노숙자가 기거하는 곳이었던 것이다. 모두 푸른 천으로 지붕을 통일했고, 개를 키우고 있었으며, 자전거나 스쿠터 같은 자가용(?)이 세워져 있어



과연 일본은 노숙자 텐트마저도 규격에 맞고 질서정연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협적이기까지 한 텐트들을 헤치고 마침내 성채를 찾았다. 술한 전란으로 파괴되어 처음 규모의 20%만 남은 것인데도 잘 정돈된 것에 놀랐다. 엘리베이터와 갤러리까지 다시 만들어 관광명소로 포장한 상술에도.

자로 잦 듯한 규격보다 넉넉한 품이 좋다. 딱 맞는 상자에 넣어두기보다 보자기에 싸고 싶다. 마이크로의 정밀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숨막히게 죄지 않는 여유가 필요한 곳도 있기에 마련이다. 인터넷으로 세계가 연결된 21세기는 절제와 규격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와 파격이 필요한 것 아닐까.

그나마 지뢰가 채 터지기 전에 내 나라로 돌아올 만큼 짧고 안전한 여행이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도착하니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땅을 적시는 그 물기가 얼마나 반갑던지, 썩 택시와 널찍한 5호선은 또 얼마나 좋던지.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래서 또 익숙한 곳을 떠나보는 지도 모른다.

DC 인터내셔널(주) 安泰賢사장

건축가에서 여성벤처기업가로 대변신 감각파를 위한 쇼핑Site '센스아시아' 개설

물리적 공간에서 건물을 설계하던 건축가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을 설계해 나가고 있는 安泰賢(DC 인터내셔널 사장)동문.

安동문은 여성을 주고객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센스아시아(www.sensasia)」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내 공간 건축가이자 여성 벤처기업가이다.

95년 모교 가정대(現 생활과학대) 소비자 행동학과를 졸업한 安동문은 당시 주거학이라는 분야에

흥행 매료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거학이 주거에 대한 평가나 집을 사는데 필요한 계획 등이 대부분으로, 직접 건물을 설계하고픈 생각을 가지고 있던 安동문에게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安동문은 주거 없이 모교 공대 건축학과에 편입했다. 건축학과 재학시절 安동문은 학부생이자 경영학과 趙東成교수의 연구 조교로, 대학본부의 벤처기업을 위한 연구공원단지 계획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시설들을 나름대로 꼼꼼히 정리, 97년 졸업 작품에 반영했다.

安동문이 졸업 작품으로 출품한 것은 벤처기업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로 당시 심사를 맡았던 교수들에게 하나의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작품으로 우수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모교 졸업 후 건축설계사무소에 입사, 건축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은 安동문은 그러나 당시 IMF라는 커다란 시련을 맞아야 했다. IMF의 여파로 당시 건축가는 대부분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해주는 수동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安동문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건축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다소 회의를 느낀 安동문은 건축가의 꿈을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모교 재학시절 만난 鄭明錫(91년 經營大卒·펀드매니저)동문과 결혼, 홍콩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安동문은 이

곳 홍콩에서도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바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감각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인터넷 쇼핑 사이트 「센스아시아」의 개설이다.

홍콩, 뉴욕, 브라질, 스웨덴 등 현지에서 판매되는 명품들을 인터넷에서 소개, 판매하는 사이트인 센스아시아는 특히 시슬리, 샤넬, 프라다, 구찌, 아르마니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의류, 화장품, 잡화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을 면세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 해외 브랜드는 선호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듯 낮은 단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중간 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생산국가에서 직접 수입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센스아시아에 대해 安동문은 「제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 중, 해외에 있는 선물용품, 인테리어용품, 패션용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의 개념으로 인터넷 상에서 오픈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벤처기업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安동문. 그렇다고 安동문이 건축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安동문은 「건축이라는 것은 땅에 속해 있어 제약을 받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상점 개념인 센스아시아도 하나의 건축」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사이버 공간 내에 건축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安동문은 센스아시아와 더불어 앞으로 해외 여러 제조업체들을 소개하며, 국내 업체 디자인을 외국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이트인 「www.sourcingasia.net」을 올해 말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安동문의 부친인 安文宅(84년 大學院卒·前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동문 역시 현재 벤처기업인 「저당권거래소」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信)



⑤ 3R(주)

디지털 영상·Data 전송 분야 세계 최강 자부

적극적 마케팅으로 올 매출액 5백23억원 예상

신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Research)와 한 차원 더 빠른 속도(Rapidity)의 기술 및 전략으로, 세계 정보통신 업계의 디지털 혁명(Revolution)을 이루려는 기업 3R(주).

지난 96년 10월 설립된 3R은 기업 초기 연구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동영상의 압축을 통해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생산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3R의 PowerDVR은 지난 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99 ISC EXPO(국제 보안시스템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美 보안산업협회가 수여하는 Product Achievement Award on CCTV(CCTV분야의 최우수 신제품)상과 Industry's Finest Award(최고의 신제품)상을 휩쓰는 기염을 토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제품생산력을 크게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일본으로부터 대량주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영상보안사업 분야의 최강자로 급부상했다.

또한 올 상반기 선보인 다자간 음성 문자 화상채팅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인터넷 화상솔루션은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술의 본고장인 미국 내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미국 초대형 B2B 전자상거래 업체인 「Tpage.com」, 실시간 인터넷 방송서비스



張成翼 사장

확보된 중국과 일본, 유럽시장을 집중 공략,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디지털 영상보안사업, 인터넷 화상솔루션 사업, 디지털 TV 관련 사업, 데이터 전송/네트워크 사업 등을 주요 영역으로 잡고 있는 3R은 최근 미국 포춘誌에 영상보안사업의 핵심인 DVR이 「소비자가 전 분야 새천년 최초 히트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또한 3R의 인터넷 화상솔루션 사업은 이미 인터넷에 접속, 다자간 문자·음성·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으며, 곧 20여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3R의 화상솔루션은 디지털 영상처리의 원천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당 15프레임 이상의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러한 뛰어난 화질

업체인 「Citi-buzz.com」 등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를 바탕으로 3R은 미국에서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 지역대리점이 이미

과 생생한 영상을 바탕으로 최근 해외 유수 업체들의 맞춤 제작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국내 규모만도 향후 시장잠재력이 무한한 사업인 디지털 TV관련 사업 분야에서 3R은 연내에 고해상도 PC모니터를 이용,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있는 저가 셋탑박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미 MBC 미디어텍과 디지털 방송 백업장치 개발판매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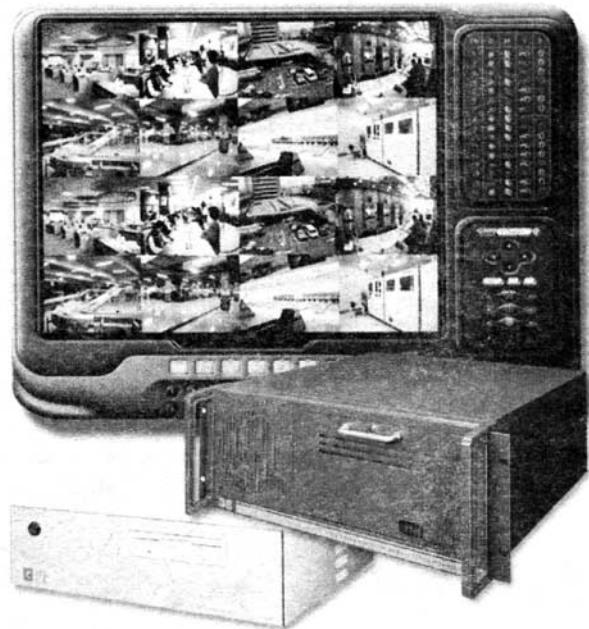
중국 전력통신 개발사업의 최종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전송/네트워크 사업 부문은 올해 중국 내 각 가정에 원격검침기로 설치될 저속 PLC(Power Line Carrier)모뎀 주문을 이미 받은 상태이며, 내년에는 중국 내 전력통신 시범지구에 설치될 상용 가능한 2Mbps급 전력통신 모뎀을 개발,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3R은 상반기 매출 계약 건만 3백억원이 넘는 성과를

올렸으며, 연내 매출액으로 약 5백23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3R의 저력은 무엇보다 사람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張成翼(90년 工大卒)사장은 성별과 나이, 학벌에 차별 없는 경영방침으로, 직원들 스스로가 인재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능력,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을 찾아내는 기획능력, 거대 시장을 확보하는 영업능력 등 3R이 가진 자체기술력은 실로 무한하다.

張사장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 자리잡은 대리점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고수익 사업과 우량한 재무구조,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등 3R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信)



3R의 주력 제품인 Power DVR

북한 동문 6명 서울 방문 50년만에 가족과 포옹



趙周敬동문이 모친 상봉의 감격을 맛보았다.

광복 55돌인 지난 8월 15일, 남과 북의 이산가족 2백명이 서울 코엑스와 평양 고려호텔에서 50년만에 혈육을 만났다.

반세기의 그리움과 기다림 끝에 마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1백명의 동포 중에 모교 동문 6명이 포함돼 있었다. 흔히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한다. 20만 서울대인들도 제 가족을 만난 듯 기쁘기 한량없었다.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동문은 權寧珪(48년 공대 토목공학과 입학), 李 燾(48년 문리대 물리학과 입학), 趙周敬(49년 문리대 수학과 입학), 趙鎮龍(49년 법대 법학과 입학), 박명규(49년 사대 교원양성소 입학), 양원렬(문리대 수학과 입학)동문 등이다.

합흥 수리동력대 교수인 權寧珪동문은 권영택·권영찬·권영길씨 등 동생들과 상봉의 기쁨을 누렸으며, 평양 김철주사범

대 교수인 양원렬동문과 李 燾·박명규동문도 형제, 친지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김일성대학 교수인 趙周敬동문은 모친(申在順) 상봉의 감격을 맛본 뒤, 의용군 시절 도움을 받았던 洪淳英(50년 文理大入)한양대 명예교수 및 문리대 재학시절 은사(尹甲炳·48년 文理大卒·경희대 명예교수)와 전 화통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북한 중앙방송 작가이자 소설가인 趙鎮龍동문은 모친(정선화)을 만나 회한의 50년 세월을 담은 사모의 詩(검은 머리, 백설이 되었습니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렸던 故 張起呂(32년 京城醫大卒)박사의 아들 張家鏞(61년 醫大卒)모교 교수는 지원요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모친(김봉숙)을 만나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다.

서울과 평양에서 2백편의 감동 드라마를 쏟아 낸 3박4일은 상봉 정례화를 향한 희망과 실련을 갖게 해준 첫 발자취로 남게 됐다.

본회에서는 金在淳회장의 축하메시지와 함께 기념품(디지털 시계, 曹秀美·吉屋潤동문 CD)을 상봉가족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상과대학

향상장학금 3천만원 전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8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본회 朴容晟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尹桂燮경영대학장, 나경상사 李升雨회장 등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상장학회 2000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경영학과 및 경제학과

재학생 30명에게 등록금 전액인 3천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同會는 모교 경영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중에서 최우수 논문을 선정, 내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1억원의 학술연구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술대학

신임 부회장에 8명 새로 선임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는 지난 7월 25일 인사동 선전 집에서 회장단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모교 후원 방안과 동창회 홈페이지 및 E메일 제작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신임 부회장으로 朴淑姬

(숙명여대 특수대학원장)·尹亨圭(고려서적 대표)·鄭致煥(영남대 교수)·全 峻(모교 교수)·白顯鈺(인하대 교수)·曹泳哲(서울산업대 교수)·朱敏淑(숙명여대 교수)·劉仁洙(상명대 미대 학장)동문 등 8명을 새로 선임했다. (表)

치과대학

「기념조형물」 착공 임박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池憲澤)는 지난 8월 7일 모교 치과대학 본관 앞에서 새 천년 기념조형물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오는 10월 10일 제막식을 가질 기념조형물은 지난 99년 5월 20일 정기총회에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취지의 계획안이 통과된 뒤, 동문들의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2억5천만원을 거둔 바 있다.

섬유공학과

趙炳祐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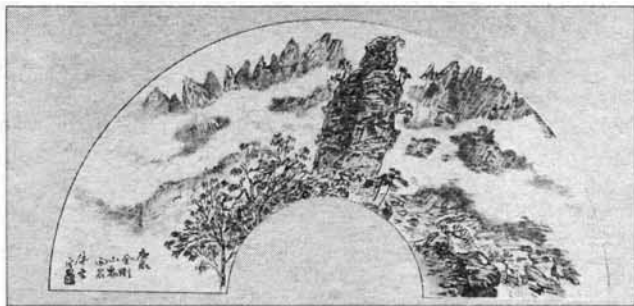
섬유공학과동창회(회장 尹炳和)는 지난 7월 13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4층 루비룸에서 200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주요사업 결과 및 결산 보고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趙炳祐(64년 工大卒·유풍실업 대표)동문(시진)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미술작품

宋 榮 邦 作



「금강산 귀면암」, 화선지, 수묵담채, 57.5×28.5cm, 2000.

◆ 작가약력 ◆

- 60년 모교 미대 회화와 졸업
- 60년 제9회 국전 특선
- 69~70년 조선일보 현대미술초대전
- 78년 TAIPEI 역사박물관 초대
- 82년 Italy 한국 현대미술 초대
- 86년 한국화 100년전
- 88년 88올림픽 미술초대전
- 92~93년 한중미술 교류전
- 94년 서울 600주년 기념전
- 96년 불교미술대전
- 96년 서울시 문화상 미술상 수상 및 문화훈장
- 98년 98동경 BESETO 국제교류전
- 99년 서울시 미술초대전
- 현재 동국대 예술대 학장

법대 28회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회 가져



법대28동기회(회장 文韓植)는 지난 7월 27일 서초동 소재 한식당 「정일름」에서 「제16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정·관계,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동문 40여명이 참석해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朴柱宣·辛基南·李洛淵·李柱榮·咸承熙동문을 축하했다.

한편 동문 서로간의 우정을 가득 담은 건배제의에 이어 당선 동문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아울러 가졌으며, 참석자 모두 학창시절로 돌아가 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에 당선된 동문들에게 앞으로도 입법활동을 통해 정의 실현에 앞장서며, 더욱 매진하여 모교의 명예를 드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학과

제14회 「동문의 날」 행사 개최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洪性夫)는 지난 6월 3일 모교 학군단 운동장에서 제14회 건축학과 동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동문 2백여명과 동문 가족 1백여명이 대거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공고히 다졌으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모교에 대한 사랑을 재차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信)

亞南 특지장학금

9명에게 1천5백여만원 수여



아남그룹(회장 金柱津·54년 法大入·본회 부회장)은 지난 8월 2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아남그룹 金柱津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0학년도 제2학기 「亞南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金俊暎(사회학과 1년), 閔楠泓

(토목공학 석사과정), 閔胡俊(경제학부 2년), 南秉祐(동양학과 2년), 韓銀俊(기계항공공학부 2년), 金官洙(약학과 3년), 任挑均(기계항공공학부 4년), 尹水仙花(제약학과 4년), 金芝善(건축학과 4년)양 등 9명이 장학금 1천5백41만원을 받았다.

洪性大 특지장학금

7명에게 1천50만원 전달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63년 文理大卒·본회 부회장)이사는 지난 8월 23일 동창회관 5

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2학기 「洪性大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洪이사는 모교 재학생 朴勝彬(중어중문학과 1년), 安棟俊(경제학부 4년), 鄭相鎬(응용생물학부 3년), 宋旻斗(의예과 3년), 宋燦雨(경제학부 2년), 鄭雲慶(의예과 2년), 林炳善(농경제학부 1년)군 등 7명에게 각각 1백50만원씩 총 1천50만원을 전달했다.

李吉女 특지장학금

2명에게 2백61만원 전해



학교법인 가천학원 李吉女(57년 醫大卒·의대동창회장)이사는 지난 8월 2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2학기 「李吉女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金施援(사회교육과 1년), 金美陳(간호학과 2년)양이 등록금 전액 2백61만5백원을 받았다.

金讚淑 특지장학금

2명에게 4백40여만원 지급



청아치과병원 金讚淑(60년 齒

大卒·본회 부회장)이사는 지난 8월 2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2학기 「金讚淑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개최했다.

金원장은 이날 모교 치대 재학생 朴斗南(치의학과 1년), 權寧大(치의학과 4년)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40만9천원을 전했다.

李鍾基 특지장학금

영·호남 고교출신 재학생 지원



상영무역 李鍾基(73년 商大卒·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사장은 지난 8월 2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2학기 「李鍾基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李사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중 영남지역 고교출신 張智皓(경제학부 4년), 韓尙協(경영학과 3년)군, 호남지역 고교출신 梁幸碩(경제학부 3년), 李洙鉉(경영학과 3년)군 등 4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1만7천원을 전달했다.

鄭八道·李慈倬 특지장학금

2명에게 3백80여만원 전해



(주)흥인 鄭八道(1기 AIP·재

단법인 관악회 이사)회장이 지난 8월 2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2학기 「鄭八道·李慈倬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鄭회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鄭成旭(치의학 4년), 李一秀(산업공학과 석사과정)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3백84만원을 지급했다.

金秉順 특지장학금

법·의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주)한국구아노 金秉順(4기

AMP·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이사는 지난 8월 2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2학기 「金秉順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개최했다.

金이사는 법대 재학생 林湖珍(법학부 1년)군과 의대 재학생 文準培(의학과 2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총 3백83만5천5백원을 전달했다.

특지장학금 전달식

5명에게 6백94만3천원 지급

각 특지장학회는 지난 8월 2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주)일성 張世一(63년 工大卒·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사장은 (주)일성 俞益壽부사장이 대리 참석한 가운데 「張世一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張在貞(사회복지학과 1년)양에게 1백7만5천5백원을 전달했다. (주)수산스타 朴柱鐸(74년 商大卒·관악회 감사)대표이사가 설립한 「朴柱鐸 특지장학금」으로 朴世勳부사장이 모교 재학생 趙在悅(토목공학과 박사과정)군에게 1백66만3천원을 지급했다.

또한 간호대동창회 楊銀淑(54년 看護大卒)회장은 「楊銀淑 특지장학금」으로 간호대 박사과정

인 崔恩順양에게 1백64만4천원을 지급했으며, 태성고무화학 鄭哲圭(52년 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은 「鄭哲圭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朴正用(응용화학부 3년)군에게 1백52만9천원을 전달했다.

한편 동일기술공사 黃海根(60년 工大卒)사장이 설립한 「李金玉·黃海根 특지장학금」으로 崔宇辰(법학부 2년)군에게 1백3만1천5백원이 지급됐다.

기금장학금 전달식

4백60여만원 전해

각 기금장학회는 지난 8월 2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치과대학 불교학생회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齒佛會(회장 李

貞燮)는 모교 柳寅哲(83년 齒大卒)교수가 대리 참석한 가운데 「齒佛會 기금장학금」 2백17만7천원을 朴晟鎭(치의학과 4년)군에게 전달했다.

본회 李世震(73년 法大卒)사무총장이 설립한 「李世震 기금장학금」으로 李相珉(법학부 2년)군이 1백3만1천5백원을 받았으며, 화학과동창회가 설립한 「화학과 동창회 기금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金萬錫(화학과 4년)군이 1백46만3천원의 혜택을 받았다. (燮)

모임예정

의대 14회

의대14동기회(회장 朴贊雄)는 오는 9월 18일 오후 6시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에서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 740-8282)

의과대학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오는 9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1층에서 동기회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40-8183)

최고경영자과정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오는 9월 28일 오전 7시 30분 웨스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조찬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 880-6912)

상과대학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오는 10월 3일 오전 9시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등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 761-2278)

농공학과

농공학과동창회(회장 洪承晚)는 오는 10월 3일 오전 10시 모교 수원캠퍼스 8동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031-290-2394)

약학대학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01-3456)

기계동문회

기계동문회(회장 孔大植)는 오는 10월 8일 오전 9시 30분 모교 관악캠퍼스에 모여 등산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오전 11시 공대 신공학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 032-818-0108)

모교소식

99학년도 후기 졸업

총 1천3백60명 학위 받아

“신입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교 9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각 단과대학(원)별로 거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자는 총 1천3백60명으로 학사 6백51명, 석사 3백97명, 박사 3백12명이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6만1백32명(준회원, 단기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및 동창회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공과대학

실험실 임대제 실시

공과대학 일부 학부가 교수들의 연구활동 촉진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실험실 임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실험공간 중 교수들에게 일정 크기의 실험실을 배정한 뒤, 남은 공간은 추가로 실험실이 필요한 교수들에 한해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방식이다.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기계항공공학부 기계설계학분야는 조교수 15평, 부교수 23평, 정교수 30평 교수 40명에게 1천여평을 배정한 뒤, 남은 5백평은 원하는 교수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다. 임대료는 10평까지 평당 1만원, 10평 초과시 평당 2만원이며 기간은 6개월로 제한했다.

전기공학부의 경우에는 전체 실험공간 1천2백여평을 76개 단위로 나눠 전임교수 53명에게 1단위씩을 배분한 뒤, 나머지 23개 단위는 「임대시장」에 내놓았다. 임대료는 1개 단위당 1년에 2백만원. 전임교수 53명 중 3개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분	8월졸업	총 회원
인문대학	94	7,966
사회과학대학	104	10,120
자연과학대학	46	7,996
가정대학	16	3,040
간호대학	-	2,878
경영대학	46	4,651
공과대학	141	32,977
농생명대학	59	17,495
문리과대학	-	9,731
미술대학	15	4,066
법과대학	41	13,627
사범대학	71	22,083
상과대학	-	6,723
수의과대학	2	1,846
약학대학	-	5,393
음악대학	16	5,943
의과대학	-	9,515
치과대학	-	5,213
대학원	610	58,512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보건대학원	52	2,457
사법대학원	-	508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34	3,621
환경대학원	13	1,639
소계	1,360	239,608
준회원	-	13,338
(단기과정)	-	7,186
총계	-	260,132

단위를 사용하는 교수는 한 명뿐이고, 2개 단위는 21명, 나머지 31명은 기본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해사와 학술교류 협정

모교(총장 李基俊)는 지난 8월 18일 경남 진해시 해군사관학교(교장 徐榮吉·ACAD 36기)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교는 공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 등 학술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金錫道교수 등 27명

정년 및 명예 퇴임



지난 8월 31일 교수 27명의 정년(명예)퇴임식이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퇴임식에는 李基俊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와 정년퇴임교수가족 등이 참석했다. 퇴임식 행사 후에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송별오찬을 가졌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錫道교수(독어독문학), 韓相福교수(인류학), 元鎬澤교수(심리학), 南世鎭교수(사회복지학), 權肅一교수(물리학), 河永七교수(생명과학), 金植鉉교수(경영학), 李忠雄교수(전기·컴퓨터공학), 高錫元교수(재료공학), 金相溶교수(재료공학), 羅亨用교수(재료공학), 洪性一교수(재료공학), 李喜根교수(지구환경시스템공학), 洪性穆교수(건축학), 李璣鉉교수(농경제사회학), 任京淳교수(농생명공학), 趙英濟교수(디자인학), 沈明鎬교수(영어교육), 黃迪倫교수(영어교육), 李順媛교수(의류학), 朴魯慶교수(성악), 金勇一교수(의학), 金丁龍교수(의학), 金眞浩교수(의학), 朴贊雄교수(의학), 尹鳳子교수(의학), 崔吉洙교수(의학).

무료 「사이버 과외」

내년부터 중고생 대상 실시

모교는 내년부터 전국 중·고교생을 상대로 한 무료 「사이버 과외」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중·고교 교과과정을 내용으로 한 인터넷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교육, 중·고교 교원연수, 정보교육 실습

등 사이버 교육을 전담할 「교육정보관」의 신축 계획을 확정했다.

사이버 과외는 현재 모교 인터넷 교육정보연구소가 PC통신에서 시범 운영중인 유료 인터넷 스쿨 서비스처럼 교수와 학생이 E메일이나 문답 게시판 등을 통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회 유급시 자동 제적

제명학생 재입학 불허

지난해부터 네차례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은 자동 제적시키는 학사제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교가 한번 제명되면 재입학할 수 없는 「유급제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학칙 개정안에 따르면 학사제명제의 적용범위를 확대, 유급제를 실시중인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의 경우 같은 학년에서 연속 2회 또는 총3회 유급판정을 받은 학생도 자동제적키로 했다.

그동안 징계로 인해 제적된 학생에 대해서만 재입학을 불허해왔으나 앞으로는 학사제명자와 유급제명자도 불허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變〉

외국인 유학생에게 Home Stay의 손길을...

현재 모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6백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숙소가 충분하지 않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힘든 실정입니다.

대부분 모교 기숙사에 입주하기를 희망하고는 있지만 기숙사에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은 이들 중 2백여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또한 우리의 후배입니다. 동문가족 한 가구당 이들 외국인 학생 1명씩이라도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교 사랑, 후배 사랑의 손길로 이들을 위해 「홈스테이」를 제공해주실 분은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서울대 국제교류센터(880-5085), 외국인 유학생회장 (바수무콜: 017-261-1358)

문화단신

新刊

국회의원 마누라가 본 이 나라의 개판정치

—尹琴重 著



故 宋元英 前국회의원의 부인인 尹琴重(54년 法大卒·前법대 여성동창회장) 동

문이 털어놓는 한국 정치의 실체. 경향신문 정치부장이었던 남편이 정치에 몸을 담고 다섯 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동안 보고, 듣고, 당하고, 느낀 이야기들을 담았다. (한국문원刊·값8,500원)

치자꽃 향기 코끝을 스치더니/이태백이 없으니 누구에게 술을 판다?

—李炳漢 著



모교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인 李炳漢(56년 文理大卒) 동문이 당송대의 이백, 두보, 백거이, 양판리, 소식, 구양수로부터 명청대의 서위, 원매, 운수평, 정섭, 이방응에 이르기까지 대외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는 한시명편을 선보였다.

李동문이 정년퇴임(1998년) 직전까지 6년간 「자하헌」(모교 인문대 교수 휴게실)에 드나들던 동료 교수들에게 소일 삼아 소개하기 시작한 중국의 한시들을 바지런히 엮어둔 것이다. (민음사刊·각권 10,000원)

아프리카의 부족과 문화

—柳鍾玄 著



한·아프리카 협회 柳鍾玄(57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부회장이 1천여종의 언어에 3천여개의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소수부족의 신화와 전설, 사회 및 가족제도, 축제, 춤과 노래 등을 분석하고 1백20점의 사진 자료를 수록했다.

아프리카는 경제적 잠재력과 전통문화의 탄력을 받고 있음

으로 앞날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柳동문의 인류학적 시선이다. (금광刊·값15,000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및 집행의 평가

—姜光夏 著



모교 경제학부 姜光夏(71년 商大卒) 교수가 지난 20년간 경제계획론을 강의하면서 줄곧 정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경제계획에 대한 평가의 기준, 1차에서 6차에 이르기까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 현시점에서의 경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대출판부刊·값8,000원)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泰旭 著



대통령 민정수석비서실 泰旭(88년 法大卒) 사정비서관이 경험담을 바탕으로 집필한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예일 로스쿨 이야기.

사회의 리더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일 로스쿨에서 泰동문이 함께 공부하면서 느낀 미국 최고 엘리트들의 꿈과 열정이 담겨있다. (조선일보사刊·값8,000원)

公演

協 스트링 앙상블

—9월 18일 예술의 전당

중앙대 음대 李鍾協(66년 音大卒)교수가 중앙대 음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協 스트링 앙상블」이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李교수가 음악감독 및 지휘를 맡아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비롯해 비발디, 아렌스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세실예술기획 583-6295)

展示

金順基 개인전

—9월 2일~10월 22일
소격동 아트선재센터

프랑스 마르세이유 미술대 金順基(70년 美大卒)교수가 23년 만에 고국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전시문의: 아트선재센터 733-8942)

(정리=安興燮기자)

동문의 소리

마음을 비운다는 것

나는 테니스 운동을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것과 잘 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닐텐데 좋아한다고 말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잘 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니라고 부정도 해보지만 이미 그러리라 넘겨잡는 상황이니 대개는 쓴웃음과 함께 얼버무리게 되고 만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테니스 조기회가 있다. 비나 눈 같은 것으로 코트 사정이 나빠지지 않는 한 일년 열두 달, 공휴일도 거의 없이 해 뜨는 시각이면 하나 둘씩 반가운 모습으로 얼굴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나이도 20대에서 60대까지, 하는 일도 가지가지건만 테니스 게임에 임하는 눈망울들은 한결

같이 초롱초롱하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코트면의 제한도 있고 해서 대개는 단식이 아닌 복식경기가 이루어진다. 단식일 경우, 잘 치든 못 치든 간에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어 큰 부담이 되진 않지만, 복식경기는 같이 한 조가 되는 파트너가 있기에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뛰게 되고 승리의 기쁨도 뒤따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려는 마음이 클수록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때, 오히려 경기는 술술 잘 풀려나가게 된



邊政民(77년 新大院卒)
세종미디어 대표

다. 이기려는 강박관념이 역효과를 낸다고나 할까.

아득히 넓고 끝없이 펼쳐지는 苦海의 거친 파도 속에 일엽편주 같은 우리의 삶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많은 선각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비워야 채워진다. 必死則生이요 必生則死라. 말이야 좋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 하지만 오늘도 마음을 비우려 애쓰면서 코트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Jazz를 좋아하십니까?

재즈는 19세기말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에서 태동한 음악으로, 불과 1백년 남짓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수많은 음악에 영향을 주었고, 스스로 다양하게 분화, 발전되어 지금은 미국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세계의 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 초기 이민시대에 들어온 유럽의 음악과 아프리카로부터 팔려온 흑인 노예들의 리듬감과 감수성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미시시피강 유역의 델타지대인 뉴올리언스에는 일찍이 해군기지가

창설되었고, 그에 따른 술집과 공창으로 인해 많은 흑인 음악인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그 대다수의 음악인들이 미시시피강을 따라 북상, 캔자스, 시카고, 뉴욕 등지로 퍼지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음악에 열광하여 1920~1930년대의 빅밴드시대(스윙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 후, 다양한 리듬과 음악으로 홀이나 클럽에서 댄스를 즐기기에 음악으로 발전했다.

재즈가 어렵다고 생각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



金英睦(81년 音大卒)
보성고 교사

지만 우선 관심을 갖고 자주 듣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비 오는 저녁, 잘 빛은 와인 한잔과 함께 가장 편안한 자세로 「Miles Davis」에 몰입하여 듣는 정취, 다른 무엇과 바꾸기 힘든 나만의 기쁨이 아닌가 싶다.

코스모스 피는 가을이면

늘 그렇듯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가 싶게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나는 늘 가을이면 길가에 무리지어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보고 싶다. 어느덧 관악을 떠난 지도 8년이 되어, 재학시절 학교 주변에 피어있던 코스모스가 보여준 상큼함, 혼자 있지 않아 외로워 보이지 않던 정겨움, 바람에 산들거리던 그 연약함이 몹시도 그리운다. 특히 옛날 사회대 경제학과(14동) 뒤편 기숙사 가는 길에 피어있던 그 코스모스가...

경제학과 출신인 필자이지만 식물학과 출신들의 양해를 구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코스모스는 국화과에 속하

며 맥시코가 원산인 1년초 식물이다. 1~2m 정도의 키에 줄기에는 털이 없고, 마주나기 형태의 앞은 깃 모양으로 갈라져 그 각각의 갈래는 선형을 이루고 있다.

코스모스는 크게 두상화, 설상화, 관상화로 분류되는데, 두상화는 연한 붉은색, 흰색, 연분홍색 등의 색깔을 띠며, 꽃잎의 지름이 6cm 정도이고 줄기나 가지 끝에 1개씩 달린다. 반면에 설상화는 화관 끝이 톱니 모양으로 얇게 갈라지며, 관상화는 노란색으로 꽃잎 끝이 부리 모양이다. 대개 4월이나 5월에 파종하여 빠르면 6월, 늦으면 10월까지 피는 꽃으로 요즘에는 일찍 피는 코스



金賢宗(93년 社會大卒)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
경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모스 센세이션의 계통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을이 되고 나서 피는 재래의 두겹고 큰 그루의 코스모스가 여전히 제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처럼 휴가가 풍족(?)하고 마음이 복잡한 때에는 아무 생각없이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오히려 위안이 된다. 는 생각이 든다.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2000년 5월 13일~5월 16일·一般：2000년 5월 3일〉

이 사

◇人文大學

허석범⁷⁶

◇社會科學大學

김범석⁸⁰

◇看護大學

최명애⁷⁰

◇工科大學

강구선⁶⁷ 강정환⁷⁰ 고문찬⁷³ 김관식⁷⁰
김석주⁵⁴ 김창식⁵⁷ 김철수⁷⁴ 박상기⁶²
박응대⁶⁷ 성기초⁶⁵ 윤재석⁶³ 윤홍갑⁶²
이봉규⁶⁴ 이승기⁷⁶ 이승우⁵⁴ 이호현⁵⁵
임무현⁶⁵ 조충희⁷⁰ 조형제⁵⁵

◇農科大學

박 준⁷³ 오세승⁵⁷ 정구현⁵⁷ 홍성구⁷²

◇文理科大學

김의경⁶⁰ 김주필⁶⁷ 나병욱⁴⁹ 신동오⁶³
이광찬⁶² 조남홍⁶² 최병민⁷⁵ 최정호⁵⁷
표순승⁶⁸ 한영우⁶²

◇美術大學

김태욱⁶⁷ 박노수⁶² 박대순⁵⁵

◇法科大學

권재진⁷⁶ 김승진⁶² 김준섭⁶⁹ 서정욱⁵⁹
양희종⁷² 오세방⁶¹ 윤호일⁶⁵ 이 홍⁶⁶
이원철⁷³ 이종걸⁶⁹ 이지수⁶⁵ 임대규⁷³
정대권⁷³ 최만립⁵⁴ 한광수⁶⁹ 홍석조⁷⁵

◇師範大學

고병교⁷⁶ 권태엽⁸⁷ 김달수⁶⁹ 문용린⁷¹
박수건⁷³ 최진오⁶⁶

◇商科大學

김근태⁷² 김동성⁷⁵ 김배철⁵⁰ 김중서⁶³
박병운⁶³ 박영조⁶⁵ 박재범⁵³ 박정식⁶³
박태하⁶⁴ 배정운⁶³ 심정규⁵⁷ 이봉서⁵⁵
이유현⁷⁴ 이하룡⁷³ 정덕용⁶³ 허성길⁶⁴
허성용⁵³

◇獸醫科大學

박근식⁵⁷

◇藥學大學

이갑열⁵⁷ 이기연⁶² 채영주⁵⁶

◇音樂大學

이종국⁶⁵

◇醫科大學

권이혁⁴⁷ 김경식⁷⁴ 김중희⁵⁵ 박용재⁷¹
윤수중⁷⁹ 장윤석⁵⁵ 전하용⁶⁹ 한병채⁶⁴

◇齒科大學

김 일⁵⁵ 김선일⁶² 김재곤⁵³ 박영숙⁵⁵
송춘근⁷⁰ 오기돈⁶⁷ 우형식⁶⁵ 유영세⁶⁶
이규철⁶⁸

◇經營大學院

이광수⁷⁷

◇保健大學院

전금자⁷⁴

◇行政大學院

임병규⁸⁵ 정여철⁷⁴ 조병세⁸⁸

◇環境大學院

임승달⁷⁷

일 반

◇人文大學

김지원⁹⁴ 송승섭⁸¹ 이종현⁹⁵

◇社會科學大學

강해운⁸⁰ 김광순⁹³ 김준한⁷⁸ 김창선⁹¹
박 진⁶⁷ 박수홍⁸⁹ 박진선⁸⁹ 서동영⁸³
송민경⁹⁴ 송상중⁸⁵ 오문석⁸⁵ 이재협⁸⁸
이춘규⁸⁸ 전주현⁹⁴ 전형남⁸⁵ 정낙형⁷⁸
조석현⁸⁷ 채희물⁸³ 최완수⁸³ 최정락⁸⁸
홍희준⁸⁹

◇自然科學大學

강경태⁹⁹ 류기상⁷³ 오광욱⁸⁷ 이동일⁸⁸
이한형⁸⁰ 장종만⁷⁶ 정동주⁸⁹ 하남규⁸⁵
허원화⁸⁶ 황성순⁹⁹

◇家政大學

김미영⁸⁵ 신은철⁷⁷ 오경화⁸⁵ 오명숙⁷⁴
윤혜원⁸⁶ 이나형⁸⁷ 이병희⁸⁰ 정은희⁷⁶
정태숙⁸⁴ 조명희⁷¹ 한영숙⁶⁰

◇看護大學

고진강⁹⁵ 권인각⁸¹ 김경남⁷⁸ 김명자⁵⁹
김시정⁹⁹ 박미정⁷⁹ 박은숙⁷⁹ 이은숙⁷⁵
조경숙⁷⁹ 최경화⁷⁹ 최명자⁵⁷

◇經營大學

강문정⁹⁷ 김경록⁹⁴ 김진우⁹⁴ 김홍섭⁸³
남태현⁹⁴ 모영철⁹⁴ 박희천⁸⁶ 배경섭⁸⁴
손병규⁸¹ 유관희⁷⁶ 유승권⁹¹ 이용수⁸⁷
이유재⁸² 이정원⁸¹ 이철재⁹⁰ 임성운⁸⁷
제준환⁷⁹ 조영국⁸⁶ 주정일⁸⁸ 홍정균⁹³

◇工科大學

강주년⁹⁹ 강정수⁵³ 구경본⁷² 구창용⁶⁴
기창돈⁸⁴ 김강수⁷⁴ 김광수⁷⁴ 김동기⁹⁷
김동식⁹¹ 김성우⁶⁴ 김영중⁶⁶ 김영환⁶²
김인선⁶⁹ 김인영⁷⁶ 김정훈⁹⁷ 김종석⁶²
김중찬⁸¹ 남기태⁸⁵ 류영석⁹¹ 문영수⁸²
문영학⁷⁰ 민경화⁹⁸ 박관호⁸⁷ 박광덕⁵⁴
박무근⁶⁴ 박성일⁷¹ 박용운⁶³ 박일동⁶³
박하영⁷⁹ 박홍규⁶¹ 서경석⁵⁶ 손용민⁹³
손중권⁷⁵ 손태원⁷⁶ 송우길⁸⁴ 송태상⁷²
신기조⁴³ 신대승⁶¹ 신동현⁹⁵ 신원종⁷⁵
신재중⁵⁵ 신현식⁵⁴ 심형보⁵⁸ 안주수⁷⁴
엄용기⁹⁰ 오상호⁵⁵ 유건선⁷⁷ 유병동⁹⁹
유성열⁸¹ 유승빈⁷¹ 윤 백⁸² 윤희태⁹⁸
이남일⁷⁶ 이대영⁶⁷ 이동수⁵³ 이두호⁹⁵
이승재⁹⁹ 이영준⁶⁷ 이육현⁸⁹ 이장호⁷²
이재학⁸¹ 이종남⁷⁷ 이한정⁸⁵ 임창우⁷¹
정민형⁸³ 정병하⁷⁶ 정산용⁷³ 정숙철⁶²
정영균⁶⁵ 정익주⁷² 정재윤⁸³ 정재인⁹⁷
정준희⁶⁵ 정지일⁸⁷ 정진삼⁶⁵ 정학진⁶⁶
정해종⁷⁰ 정휘원⁶⁵ 조래훈⁹⁴ 조용훈⁷⁷
조용훈⁶² 최병국⁷⁴ 최용렬⁶⁴ 허성구⁷⁹
홍성룡⁸⁷ 홍순일⁵⁷ 황일수⁸³ 황호남⁷¹

◇農科大學

강영선⁸² 권상대⁶⁸ 김병경⁸⁹ 김성자⁶⁷
김영주⁷⁵ 김재학⁵⁷ 김정환⁶⁶ 김진상⁵⁷
노영성⁷⁸ 문장달⁶² 박응봉⁶⁴ 박홍준⁸⁹
서상교⁸¹ 송계원⁴⁸ 송기연⁶⁰ 신세영⁸⁰
양준식⁸⁹ 오상훈⁴⁷ 유종명⁶⁶ 윤상진⁷⁶
윤재섭⁹⁰ 이근희⁷⁰ 이덕원⁷⁴ 이범재⁶⁹
이재창⁶³ 이정민⁹⁵ 이진희⁸⁵ 이호상⁷⁷
임상봉⁸⁶ 임용재⁷¹ 장순영⁵⁶ 전계상⁵⁸
전유현⁷⁵ 정봉수⁸⁶ 정연택⁸⁷ 조장호⁶⁵
주기석⁷⁸ 지근진⁶⁴ 지영숙⁶³ 최영호⁷⁹
한영태⁸⁶ 홍성근⁶¹ 황장수⁹¹

◇文理科大學

강승렬⁶⁶ 강희영⁵³ 고정택⁶⁶ 권동숙⁵⁶
김영수⁶³ 김태욱⁶⁴ 김판금⁷⁰ 김홍철⁶⁶
김훈수⁴⁹ 나학진⁵⁷ 박영순⁷⁵ 박종표⁶⁴
서남수⁷⁵ 서병현⁵⁷ 송소영⁷² 신동우⁷⁵
안원태⁵⁶ 안정수⁶⁶ 이길준⁶⁶ 이석우⁵⁴
이원구⁶⁰ 이인기⁶⁶ 임동규⁵⁹ 장화순⁵⁹
정정영⁶⁶ 조규하⁵⁸ 조상수⁷¹ 지경홍⁶⁴
지충상⁷⁵ 최봉석⁷³ 최상훈⁷⁵ 최영부⁶⁷
최진영⁵⁹

◇美術大學

김규봉⁹³ 김서봉⁵⁴ 김현실⁷⁰ 김혜원⁸⁰
민경갑⁵⁷ 유연식⁸⁴ 정영섭⁶⁰ 조정송⁶⁵
채혜선⁸⁶ 최연희⁷² 추명희⁷⁴ 현지연⁹⁷

◇法科大學

고원중⁴³ 김대권⁷⁴ 김석호⁵⁹ 김성수⁸⁵
김세충⁷⁶ 김태규⁹⁹ 동현철⁸⁴ 박재원⁶¹
박정선⁶⁴ 백인창⁷⁴ 변동걸⁷⁰ 서영덕⁶¹
석광세⁶³ 안병익⁸⁹ 양승규⁶⁰ 윤종근⁸⁹
이하우⁶² 임숙경⁷⁴ 장순환⁴⁴ 정갑주⁷⁷
정병건⁶⁷ 조미경⁶¹ 조현우⁷² 최선근⁵⁷
최성락⁶⁹ 최영도⁶¹

◇師範大學

김경호⁵⁵ 김광준⁶² 김노중⁶⁰ 김상현⁸⁵
김성태⁷¹ 김숙자⁴⁷ 김순애⁶⁰ 김연주⁸⁹
김영순⁶² 김정아⁷⁰ 김종욱³⁹ 김진경⁸⁷
김희균⁹⁰ 류은선⁸² 박수용⁶⁷ 박인식⁵²
백남수⁴⁵ 서재형⁹² 심상범⁶⁴ 안승문⁸³
오길임⁴⁴ 오진경⁹⁸ 유영숙⁴² 이무일⁷⁰
이봉기⁷⁴ 이재혁⁶⁵ 이한규⁸⁰ 이현택⁵⁷
이홍식⁷⁶ 임태순⁴⁴ 장경희⁷⁴ 정홍대⁸⁷
지충성⁶¹ 최재용⁶⁵ 하호백⁹¹ 한정식⁵⁹
홍경만⁵⁸ 황성욱⁶⁸

◇商科大學

강재경⁶¹ 권보상⁶¹ 김기휘⁷⁰ 김동원⁷³
김안웅⁷¹ 김재진⁶⁰ 김진호⁵⁸ 남기호⁶⁷
노창송⁶⁵ 류태환⁶⁴ 박정하⁶⁹ 박창규⁶¹
박항천⁶⁵ 박효민⁷¹ 소구영⁶⁴ 손홍규⁵⁵
송인덕⁶⁹ 신현철⁶⁷ 심재식⁶⁴ 예종호⁵³
오정환⁶⁵ 유승준⁴³ 윤정근⁵³ 이석우⁶⁷
이선호⁶⁴ 이승웅⁶⁴ 이윤우⁷² 이태용⁷²
이희원⁶⁹ 인수환⁵⁸ 임지순⁷² 장세진⁷²
정상웅⁶⁸ 정정숙⁵³ 태재렬⁷¹ 한정준⁵⁸
현임종⁶⁰

◇獸醫科大學

강석주⁵⁹ 김영선⁵⁹ 남기용⁸¹ 신상익⁵⁹
이장락⁴⁹ 장세진⁶² 정영화⁶⁰ 조용호⁸⁷
한기호⁶⁶ 함혜영⁵⁵

◇藥學大學

곽영의⁶⁵ 구창모⁷⁷ 김기풍⁵⁵ 김수진⁷⁵
김연수⁹¹ 김영호⁵² 김정숙⁷³ 문웅대⁶³
문태상⁹² 박창서⁷⁴ 백혜영⁶⁹ 손현아⁹²
신현우⁴¹ 윤여상⁶¹ 장덕기⁸⁰ 정대인⁷¹

◇音樂大學

김 진⁸⁵ 김셋별⁷¹ 김은옥⁹⁰ 김혜자⁶⁸
민항기⁶⁸ 박세경⁸³ 방영호⁸⁴ 신대철⁷³
안 민⁸¹ 윤문숙⁸⁴ 이기진⁷⁸ 임은정⁸⁷
정금련⁸⁵ 정진희⁸¹ 조문자⁶⁶ 최보금⁶⁹
최재원⁹⁶ 한기세⁷⁵ 한정열⁹⁶

◇醫科大學

강수경⁸⁸ 강진국⁶³ 김승철⁸² 김영진⁴²
김종숙⁸³ 김종정⁶² 김충철⁶⁷ 문상은⁸⁶
문홍세⁶⁰ 박순일⁵⁷ 박인원⁸³ 백성현⁶²
소순호⁸⁴ 손병선⁴⁸ 신호철⁸² 심용석⁶⁵
안경희⁶⁶ 안병원⁷⁶ 양원용⁷⁵ 원중희⁵⁵
유 권⁸² 유종근⁷⁷ 이민성⁷⁰ 이상일⁸⁵
이언복⁵³ 이원석⁶⁷ 이종일⁵⁴ 이충원⁸²
이해옥⁸¹ 장명훈⁸⁴ 조수경⁵³ 최동섭⁷⁵
최형석⁵⁶ 한두호⁶⁸ 황의기⁸³

◇齒科大學

김기수⁸⁴ 김명기⁷⁶ 김민수⁶⁰ 김연민⁵⁹
김유진⁸³ 김재권⁶¹ 김정일⁷⁶ 김정자⁶⁵
김종택⁶³ 김중수⁷² 김전식⁷⁷ 김충배⁷⁸
김태의⁶⁷ 김택근⁶³ 김현규⁷⁰ 문명용⁸⁴
박경정⁷⁵ 박경준⁸³ 박기욱⁶⁶ 박상윤⁷⁸
백정화⁹⁰ 변호영⁸⁸ 서성구⁸¹ 신언일⁷⁷
안경민⁸³ 오경서⁵⁸ 유지은⁵⁸ 이병규⁶¹
이삼선⁹⁰ 이상현⁸⁷ 이상훈⁸¹ 이인우⁸⁵
이주장⁷⁹ 이철원⁷⁹ 임우하⁶² 장병천⁷⁴
정필훈⁷⁹ 제갈선영⁷¹ 조경석⁸³ 조영선⁵⁷
최덕호⁶⁴ 최봉섭⁵⁷ 최순철⁷⁹ 홍현식⁸⁸

◇大學院

고세훈⁸⁷ 김도현⁷⁶ 김동선⁵⁹ 김명숙⁹⁵
나병만⁷⁷ 원상봉⁸³ 임일택⁹⁰ 한대성⁸⁸

◇經營大學院

성병찬⁹⁰ 이기화⁸⁴

◇保健大學院

박노례⁸¹ 송선대⁷²

◇行政大學院

김공환⁶⁸ 김주섭⁷⁷ 김홍수⁶³

◇環境大學院

이광희⁸⁷

◇최고경영자과정

김건종³⁸ 김경환³¹ 김승유¹⁹ 김영도²³
김종식²⁴ 김홍래³⁶ 민상기²⁵ 박종관¹²
박현수³⁶ 백종만³⁹ 서만규⁴⁷ 신현수¹⁸
안영복¹ 양성모⁴³ 양성욱¹ 오정근⁴⁰
유부용⁴⁶ 유재명³⁴ 이상철¹² 이연성⁷
이영숙¹³ 임창섭¹⁴ 전창열³⁹ 정인영⁴¹
조린상² 태석배³ 한규범⁴²

◇최고산업전략과정

강명영²⁰ 김우식¹⁹ 김학선¹ 박규영¹⁷
박용식¹⁶ 박영운⁵ 이근모¹ 이용안¹⁷
장병준¹⁷ 주영현¹² 홍순겸⁵

◇국가정책과정

김복득⁴⁵ 남기춘³⁹ 노희찬³³ 문연식⁴⁷
안영철³⁹ 양창식³ 오정숙⁴³ 이규식⁴⁴
이병정²⁵ 전재구¹ 정종길⁴⁴ 진재철⁴⁵

◇고급금융과정

조만식³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유영구⁵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이영길³

◇가정간호수습과정

김순희³

◇보건의료정책과정

김성한¹ 서관석² 정재규² 조병하⁴

월 계 : 18,510,000원

누 계 : 270,509,500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2000년 7월 1일~7월 31일〉

개 인

◇人文大學

▲박동춘⁷⁷

◇社會科學大學

▲윤도환⁷⁹

◇家政大學

▲이혜원⁹⁷

◇工科大學